

PCUSA는 한인교회 지원 강화해야

미국장로교한인교회전국총회 태스크포스 6가지 내용의 헌의안 상정 동성애 관련 행동 결정, 양심의 자유 보장돼야

미국장로교(PCUSA) 제222차 정기총회가 오는 6월18일~25일 포틀랜드 오레곤 컨벤션 센터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미국장로교한인교회전국총회(NCKPC) 태스크포스 팀이 PCUSA 총회에 한인교회 지원을 강화할 것을 골자로 하는 헌의안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NCKPC 태스크포스팀은 지난 2014년 한미노회 해산안이 하와이 대회에 이어 총회에서 가결된 이후 총회가 한인교회들만의 독특한 문화적 상황과 필요를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이를 위한 대화 및 총회와의 협력을 통한 한인교회의 부흥을 도모하기 위해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어 운영해 오고 있다.

태스크포스팀이 상정한 헌의안의 주요 내용은 총 6가지로, 총회 내 산하 조직에 한인교회들 및 2세 한인교회들을 육성할 수 있는 영구직을 신설해야 한다는 것과 한인

노회 조정 부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PCUSA 내에 한인교회들이 총회 내에서 보다 주도적인 역할과 위치를 확립할 수 있도록 총회적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한어권 교회들 및 노회들, 2세 한인교회들 지원하고 육성할 목적의 영구직 신설 △지역 한인 노회들과 비지역 한인 노회들 간의 소통 창구인 한미노회조정위원회(CCKAP) 지원 강화 △대회 경계에 대한 재조직을 심의할 경우 비지역 한인 노회가 미 서부 지역에 신설될 가능성을 염두해 둘 것 △PCUSA 교회들이 한인 커뮤니티에서 나오는 다양한 의견들을 수용할 것을 촉구해줄 것 △위 사항들을 이행하기 위한 영구직의 효과를 검토, 제 224차 총회에서 발표할 것 등이다.

태스크포스팀은 “모든 한인 장로

교인들이 자신들의 교회 및 그 이상의 교회(the larger church) 생활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full participation) 하기 위한 공간을 한어권 교회들 및 미국 장로교 안에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면서 “아울러 안수 및 결혼과 관련해 PCUSA가 취한 조치와, 그러한 조치들 하에서 모든 미국 장로교인들이 유지하는 양심의 자유를 명확히 설명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활동 배경을 설명했다.

또 태스크포스팀은 PCUSA 내 동성애 이슈와 관련해서도 “한인 교회들 사이에서는 결국 PCUSA가 동성애에 관한 양심의 자유를 상실

할 것이라는 생각에 큰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확증해 주듯이, 양심의 자유는 PCUSA 역사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으며 태스크포스팀은 양심의 자유를 상실할 것이라는 염려가 근거가 없는 것임을 발견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올해 총회 헌의안 중에는 결혼정의의 과거와 같이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되돌릴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한 미국 노회에 의해 상정돼 있는 등 동성애에 관한 정책을 바로 잡으려는 시도들이 아직 사라지지 않고 있다.

김대원 기자



십자가의 길은 필수적이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좇지 않으면 능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모세가 뱀을 든 것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받고 죽임 당해야만 한다고 하셨다.

양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목숨을 반드시 희생하셔야만 했던 것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견뎌내셨다는 것과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생명이 자신들에게 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자신들도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못한다.

부활절을 앞두고 고난주간을 맞아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한 은혜를 깊이 묵상해 보자.

주일, 교회 門 단습니다

인천방주교회 파송프로젝트 성도들 미자립교회로 흩어져 주일예배 드려

인천의 한 교회(인천방주교회, 담임 박보영 목사)가 주일에 교회 문을 닫고 성도들로 하여금 개척교회들로 흩어져서 주일예배를 드리는 파송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이 교회 예배실 문 앞에는 이 프로젝트 안내를 알리는 안내 포스터가 나 붙었다. 그 안내 포스터에는 15개의 미자립교회 명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13일 이 교회 성도들은 각기 해당 교회로 흩어져서 주일예배를 드렸다.



인천방주교회.

최근 높은뜻정의교회의 오대식 목사가 성도들로 하여금 기독교의 복음을 생활화하도록 하기 위해 현금없는주일운동을 펼쳐서 좋은 반향을 일으킨 이래, 한국 교계에 귀감이 되는 또 하나의 운동이 펼쳐지고 있고 있는 것이다.

교회 형편이 어려워져서 아니라 미자립 개척교회들로 성도들을 보내어 영적, 재정적 활력을 나누어 주기 위함이다.

이 교회에 따르면 <동행 프로젝트>로도 명명된 이 운동은 매 11주차(5월29일, 8월14일, 10월30일)마다 실행될 계획이라고 한다.

인천방주교회의 담임인 박보영 목사는 “주일날 설교만 듣고 가는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양들을 가르쳐야 한다”면서 교회 문을 닫는 취지를 설명했다. 이 교회에서는 적극적인 말씀의 실천 프로젝트가 진행중이다.

이인기 기자

“신천지, 자금과 인력으로 전도총력”

CBS 및 교계언론 상대 성명내고...노방전도 활동 전개해

신천지교회(이만희 교주)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신천지교회 측은 14일(월) CBS를 비롯한 교계언론사를 상대로 비난 성명을 내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신천지교회 측은 성명에서 교계언론들이 “사실 확인이라는 보도의 기본도 무시한 채 거짓 왜곡 보도로 신천지 교회의 성장을 가로막는 처사에 대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며 “CBS를 비롯한 일부 기독교언론이 신천지교회를 온갖 악의적 거짓말로 매도해 옴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반사회, 반국가단체로 오해 받게 해 온

것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일부 신천지 성도들은 15일 오후 충남 천안역 서부 광장에서 포교활동을 벌였다. 이들은 신천지교회 활동을 담은 사전을 전시하고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홍보물 및 성명서를 나눠줬다. 신천지가 그동안 신분을 위장하고 기성교회에 침투하는 전도방식을 사용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노방전도는 무척 이례적인 일이다. 특히 천안 서부역은 통학 대학생들로 붐비는 지역으로 청년 대상 신천지 포교 활동이 우려된다.

지유석 기자

서울광장 동성애 축제 우려

퀴어축제 축, 6월 사용 신청

퀴어문화축제 축이 10일 서울시에 오는 6월 8~11일 서울광장 사용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한국교회 동성애대책위원회(이하 한동위)는 15일 긴급회의를 열고 서울시장 앞으로 서울광장 사용 불허 요청 공문 발송 및 서울시장 면담을 신청했다. 한동위는 “퀴어문화축제 축은 올해 6월에도 축제와 퍼레이드를 서울광장에서 진행, 서울광장을 아시아 퀴어문화축제 센터로 만들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8면에 계속]

나라정비 타이어 대리점
GOODYEAR
 유럽차 전문점
 SMOG CHECK
 범퍼·도어·바디복원·무료견적·Rent Car
 323.734.4881 | 월~금: 8am~6pm / 토: 8am~5pm 1201 S.Western Ave, LA 웨스트턴과 12가

아이비 유학 Shelby Kwon Director
 적성검사를 통한 진로 선택의 지름길
 재능 개발·토크스, 얼바인 Class (Verbal, Visual, Logical, Creative, Physical, Emotional)
 3-7-21 재능캠프
 USA Tel: (951) 383-5583
 Tel: (949) 329-8222
 Email: shelly.moon65@gmail.com
 www.Mylivdream.com
 LA 500 Shatto Place, Suite 200
 Torrance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Irvine 17702 Cowan, Irvine, CA 92614

한 영혼 살리기 말씀축제

주제: 더 큰 일을 보리라 (요 1:50)



강사 이정근 목사
 유니온교회 원로목사
 미주성결교단 총회장 역임
 미주성결대 총장 역임

- 일시: 4월 14일(목) 저녁 7시 30분
 15일(금) 새벽 6시, 저녁 7시 30분
 16일(토) 새벽 6시, 저녁 7시 30분
 17일(주) 오전 8시 30분, 11시
- 장소: **미주평안교회** (Vermont + 2가)



미주평안교회

담임 임승진 목사 T.213-381-2202 F.213-381-2535 www.mpcla.org
 170 Bimini Place. Los Angeles CA 90004



PCA 한인서남노회가 15일 오전 인랜드교회에서 개최했다. 이 노회에서는 오정현 목사의 안수에 관한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PCA 한인서남노회 “오정현 목사 안수 공식 확인”

소송 대비해 전권위원회 구성하고 총회 법사위에 청원

서울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의 목사 안수 문제를 둘러싼 논란 가운데 오 목사에게 안수를 한 PCA(미국장로회) 한인서남노회가 제66회 정기 노회에서 “오정현 씨를 안수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문건을 채택했다. 이는 오 목사의 안수를 둘러싼 여러 논쟁 중 서남노회가 오 목사를 안수했음을 공식화하는 것이다.

사랑의교회 갱신위원회 측은 오 목사의 편법 목사 안수를 문제 삼고 있다. 이들의 핵심 주장 중 하나는 “오 목사가 CRC(북미주개척교회)에는 있지 않은 강도사 제도를 이용해 PCA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는 것이다. PCA는 목사 안수를 위해 강도사와 인턴을 거친 후, 목사 고시를 통과하도록 하는데 오 목사가 제출한 CRC에서의 강도사 경력은 PCA의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지난 1월 26일 서남노회 현 임원들과 전직 노회장들은 모임을 열고 오 목사의 안수에 대한 내용을 제66회 노회에서 공식적으로 표명해 줄 것을

권고했다. 이에 노회는 “오정현 목사 안수에 대한 노회 공식 확인- 1986년 10월 14일-15일에 거행된 PCA 한인서남노회 제7회 노회(장소: 휴스턴 한인장로교회)는, 절차에 따라 오정현 씨를 목사 고시 후, 안수하였음을 공식 확인한다(근거: PCA 한인서남노회 제7회 노회 회의록)”이란 문건을 채택했다. 이 문건의 초안은 “공식 표명한다”였으나 이 문제에 대해 한국에서 법적 싸움이 진행되고 있기에 신중을 기해 이같이 결정했다.

인랜드교회에서 15일 오전 9시 시작된 노회는 오후 6시 40분을 넘겨서야 끝났다. 노회원들은 오 목사의 안수 과정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으나 여러 자료를 검토한 후, 1986년 오 목사가 그 당시 절차에 따라 목사 고시 후 안수를 받았다는 점은 역사적 사실이라고 공식 확인했다.

노회원들은 사랑의교회 갱신위가 노회 서기를 고소한 사실에 대해서는 불편함을 감추지 못했다. 오 목사는 갱신위가 제기한 ‘위임 결의 무효 소

송’에 대처하기 위해 2016년 1월 10일 노회에 본인의 목사 안수에 관해 질의했으며 1월 12일 노회 서기 김상선 목사는 PCA 총회 서기 로이 테일러 목사가 작성한 여러 서한에 근거해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발송했다. 이 과정에서 노회장과 합의는 없었다. 그러나 이후 1월 24일 노회장 고건주 목사가 갱신위 측에 “오정현 목사가 PCA 한인서남노회에서 강도사 인허를 받은 기록이 없고 다른 노회에서 강도사 인허를 받고 이명된 기록은 없다”는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갱신위는 노회 서기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이에 대해 노회는 서기와 노회를 보호하기 위해 5인으로 전권위원회를 구성하고 법적 소송에 대처하기로 했다. 또 총회 법사위원회에 오 목사 안수와 관련된 제반 문제를 다루어달라는 청원서를 올릴 계획이다. 이 청원서의 구체적 내용도 5인으로 구성된 청원서 문구위원회에 위임했다. 김준형 기자



KCCC 미주대표 김동환(왼쪽) 목사와 남가주동신교회 백정우 담임목사(중양)가 선교 협력 관계를 체결하고 상호양해각서를 교환하고 있다.

“남가주동신교회-KCCC MOU”

상호양해각서 교환...KCCC 회관도 교회 내로 이전

남가주동신교회와 KCCC(미주 한국대학생선교회, 순 무브먼트)가 차세대 선교에 협력하기로 약속하며 상호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 이 틈도 순 무브먼트(soon movement)로 변경하며 LA 한인타운 8가와 유니온 길에 있던 KCCC 회관도 이미 풀러튼에 있는 동신교회 내 부속건물로 이전했고 동신교회는 KCCC의 사역에 필요한 예배 공간, 사무실, 음악 스튜디오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KCCC와 개교회가 선교 협력 관계를 MOU 형식으로 맺은 것은 KCCC 45년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동신교회 담임 백정우 목사는 “다음 세대가 없다면 교회든 선교단체든 큰 위기를 맞게 된다. KCCC의 사역 열정과 노후를 나누어 하나님 나라 건설에 유익하다면 약간의 불편함은 감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KCCC 미주 대표 김동환 목사는 “우리 통계에 따르면, 한인의 75~80%가 대학생이 되면 교회를 떠난다. 우리는 교회와 협력하면서 한인 1세 교회를 향한 2세들의 부정적 이미지도

극복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또 김 목사는 이번 협약으로 KCCC의 행정 및 운영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 양해각서는 캠퍼스를 중심으로 한 차세대 사역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KCCC는 동신교회에 대학생 선교 및 리더 양육 관련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캠퍼스 선교 전략을 공동개발한다. 또 교회가 캠퍼스 선교를 직접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회와 사역 자료도 제공한다. 동신교회는 학교 주변 캠퍼스를 입양해 KCCC의 사역을 돕고 기도, 헌금, 참여의 형식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들은 향후 2년간 상호 합의 아래 협력하며 양해각서 내용의 변경이나 해소는 서면으로 하도록 명시했다. 이날 선교 협력 체결식에는 동신교회의 목사와 장로 10여 명, KCCC의 간사 20여 명이 참석하는 등 양측의 관심이 집중됐다. KCCC는 앞으로 지역 한인교회들과 선교 협력 관계를 맺고 대학생 선교 노후유를 공유할 계획이다. 김준형 기자

“기독교 신앙의 원리와 기독교인의 삶”

미주영광교회...김인수 목사 초청 부흥집회 개최



김인수 목사가 집회를 인도하고 있다.

미주영광교회(담임 윤충열 목사)가 김인수 목사(전 미주장로회신학대학 총장)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기독교 신앙의 원리와 기독교인의 삶’이란 주제로 11일부터 13일에 걸쳐 부흥집회를 개최했다. 김인수 목사는 첫째날 ‘기독교 신

앙의 원리’(요1서3:16-18), 둘째날 ‘네가 먼저 선택하라(창13:1-13)와 ‘두 그리스도인’(행3:1-10), 그리고 마지막 주일예배에서는 ‘피로사신교회’(행20:28-38)란 주제로 각각 집회를 인도했다. 김인수 목사는 첫째날 ‘기독교 신

앙의 원리’(요1서3:16-18) 주제의 말씀선포를 통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는 전적으로 다르다. 예수에 대한 믿음은 형제들을 위하여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행함이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김 목사는 또 “예수를 안다는 것은 쉬운 것일 수 있으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 있다. 기독교 신앙의 원리는 형제에게 감사함으로 생명까지 내놓는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어려운 일이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진실하게 실천하는 행함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며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그분의 희생의 의미를 되새겨 보기를 당부한다”고 했다.

미주 성경적 상담 자기대면 세미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성경적 관점으로 이해하고 성경적 소망 가운데 성경적 변화를 위한 ‘자기대면’ 원리 실천을 통하여 인생의 실패를 초래하는 고질적인 인격적 단점을 극복하고 온전한 변화를 체험한 후 다른 사람들의 삶의 문제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성경적 상담사로 헌신케하는 과정의 세미나가 열린다.

- 일시: 2월 30일(수)-4월 1일(금)
- 장소: 빛내리교회(1201 S. Beach Blvd., La Habra, CA 90631)
- 문의: 949-275-5083 (이명희 목사)
- 회비: 80불(교재 및 점심 포함)
- 강사: 이요나 목사 (홀리라이프 치유상담학교 학교장)
- 주최: 오렌지카운티 교회협의회
- 주관: 홀리라이프 & Eagle High Mission
- 홈페이지: www.holylife.kr

SAS 인가컨설팅 비영리단체, 선교회, 연구소, 종교특례 대학 및 일반대학 설립인가 미 전역 종합서비스

대표 Paul Kim, Ph. D summitus37@gmail.com

Tel : (213)531-7215, (909)993-3028

2975 Wilshire Blvd, Suite B01, Los Angeles, CA 90010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중독으로부터의 탈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기대면 코스의 목적

인생의 모든 문제를 성경적 관점으로 이해하고 성경적 소망 가운데 성경적 변화를 위한 ‘자기대면(Self-Confrontation)’ 원리 실천을 통하여, 인생의 실패를 초래하는 고질적인 인격적 단점들을 극복하고 온전한 변화를 체험한 후 다른 사람들의 삶의 문제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성경적 상담사로 헌신케 하는 과정이다.



세미나 안내

- 일시 : 2016년 3월 30일(수)~4월 1일(금)
- 장소 : 빛내리교회 (박용덕 목사 시무) 1201 S. Beach Blvd, La Habra, CA 90631
- 회비 : \$80 (교재와 점심포함)
- 강사 : 이요나 목사 (홀리라이프 치유상담학교 학교장)
- 문의 : 949-275-5083 (이명희 목사)
- 주최 : 오렌지 카운티 기독교 교회협의회(회장 민승기 목사)
- 주관 : 홀리라이프 & Eagle High Mission www.holylife.kr
- 후원 : 미주한인성경적상담협회

오렌지 카운티 기독교 교회협의회와 함께하는

미주 성경적 상담 자기대면 세미나

Self-Confrontation : Biblical Counseling

주제 : 중독탈출(성중독, 우울증, 분노)

세미나 일정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8:32)

일시	10시-12시	12시-13시	13시-15시	15시-17시
3월30일(수)	개강예배 오리엔테이션	점심	변화의토대 자기대면(1)	변화의구조 자기대면(1)
3월31일(목)	변화의실천 자기대면(3)	점심	성중독 탈출	알코올/약물 중독탈출
4월1일(금)	우울증/분노 탈출	종강예배 워크샵		

강사 소개

이요나 목사
(성경적상담 박사)

- 갈보리채플 서울교회 담임
- 성경강해 Bible Teacher
- 자기대면(Self-Confrontation)교수
- 한국성경적상담협회 대표
- 탈동성애운동 홀리라이프 대표
- 동성애치유상담학교 학장





사우디아라비아의 자발 라오즈에 있는 시내산 추정 전경을 직접 보고 경험한 내용을 담담하게 설명하고 있는 김승학 집사.

◎〈떨기나무〉 저자 김승학 집사



김승학 집사는 두 권의 <떨기나무> 저서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 왕자 주치의로 있는 16년 동안 12번의 탐사를 통해 자발 라오즈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내산에 대해 눈으로 보고 경험한 것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 눈으로 보고 느낀 것을 온 천하에 알리라

“반석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고(시78:16)”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시내산으로 추정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자발 라오즈 16년에 걸쳐 12번의 생명을 담보로 한 현지 답사의 생생한 현장 탐험 답사 중 입수한 수많은 증거를 한국선교역사기념관에 기증

시내산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모세에게 십계명과 율법, 성막 건축 등을 알려주신 장소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시내산 위치에 대한 의견이 현재도 정설로 된 곳이 없다. 다만 탐사에 임한 학자들이 각기 본인들의 연구와 고증에 입각하여 주장하고 있는 유력지만 있을 뿐이다. 현재 시내산으로 추정되는 곳은 학자들에 따라 약 13여 곳에 이른다. 그리고 그중 가장 유력한 곳은 다시 3곳으로 압축된다.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시나이 반도의 자발 무사와 네게브 사막의 Har Karkom, 그리고 김승학 집사가 주장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미디안 자발 라오즈. 김승학 집사가 이곳 라오즈에 시내산이 있을 것이라는 추정하에 본격적인 답사를 시작한 계기는 아주 우연히 찾아왔다. 성지순례를 다녀

온 부친 장로가 건내준 한 편의 비디오 테이프 때문이다. 그것은 론 와이어트(1933~1999)가 시내산은 현재의 시나이 반도가 아닌 사우디아라비아의 라오즈에 있다고 한 주장의 내용이었다. 이때 김 집사 부친은 이미 성경을 130독 이상 정독한 상태였다. 우연의 일치일까? 그 당시 김 집사는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주지사였던 마지드 왕자의 주치의로 있었다. 그런데 론 와이어트가 시내산이 있을 것으로 주장하는 라오즈는 일 반인으로는 그 어느 누구도 통행이 불가능한 군사기지로 묶여있어 정부 군이 삼엄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는 지역이다. 다행히도 김 집사는 왕자가 발행 해준 통행증 덕분에 현지 답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왕자 주치의로 있던 16년간 12차례의 답사를 통한 탐험을 감행했다. 가는데만 약 7백 5십

마일을 달려야 다다를 수 있는 그곳을 12번씩이나 다녀온 것이다. 물론, 사막 한가운데서 길을 잃기도 하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일도 수도없이 겪어야만 했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어떤 힘은 생명을 담보로한 탐사 여정을 계속하게 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세가 물을 내게 했던 반석, 금송아지 재단, 금촛대 암각화, 12기둥 흔적, 모세우물 등 성경에 쓰여진 모든 흔적들, 그 당시 탐험 여정에서 보고 느꼈던 생생한 과정은 <떨기나무>, <떨기나무2>라는 제목의 두 권의 책자를 통해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이 두권의 책은 그곳에 접근할 수 없는 독자들로 하여금 간접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 준다. 탐사 중 수중에 넣게 된 많은 자료들은 고고학적 고증을 거치기도 했다. 그리고 그 자료들은 현재 부평시 소재 한국 선교역사기념관에 전시되어 있다. 라오즈 시내산은 절반은 김 집사에 의해,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또다른 사우디 아람코 석유회사 직원이

었던 JIM에 의해 동시에 탐사되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미국에서 <The Exodus Conspiracy>라는 영화에 제공됐다. 상영관 미개봉작인 이 영화는 현재 3편으로 재편집 기획되고 있다. 어쩌면 시내산 위치를 규명하는 일은 구원과는 상관없는 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출애굽의 현장을 현재에 가능해 볼 수 있는 그 어떤 것(곳)이 있다면 충분히 가치 있고 의미 있을 것이다. 이영인 기자



모세가 물을 흐르게 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반석.

기독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이원상, 박기호, 방지자,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번호사 : 정찬용
지사망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푸엔테 힐스 현대 HYUNDAI
당신의 마지막 카드
13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 찰리 정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새빛한의원 Saevit Acupuncture Clinic
213-389-8275
520 S. Virgil Ave., #305 Los Angeles, CA 90020
한방내과, 한방성형 & 통증클리닉
수술없는 한방 성형
한방감기 특별처방!!

2016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예마 집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갈 3:13)
일시 2016년 3월 21일~3월 25(금)
시간 오전 5:00~6:00
예수의 마음을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박정환 담임목사
예수인교회 CHRISTIAN CHURCH 10452 Louise Ave., Granada Hills, CA 91344 T. (434) 229-6597 www.cmc-12.com



복음주의연합 출범감사예배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복음주의연합 ...출범예배는 기도의 출발식”

복음주의연합(회장 정인수 목사, Coalition of Korean American Ministries, 이하 CKAM) 출범감사예배가 지난 13일(주일) 아틀란타연합장로교회에서 드러졌다.

CKAM의 예배위원장 조현성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감사예배는 김종현 목사의 대표기도, 한은총 목사의 성경봉독, 정인수 목사의 설교, 한병철 목사의 경과보고, 김선배 목사의 축사, 장영일 목사의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기도로 열어가게는 복음주의 연합”

이란 주제로 말씀을 전한 정인수 목사는 “오늘 복음주의 연합의 출범은 지속적인 기도의 자리가 돼야 한다. 답답한 마음으로 교단의 세속화를 근심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뜻을 같이 하는 동역자를 붙여줘 복음주의 연합이 태동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CKAM 참석자들은 ‘신앙고백문 제8항’ 낭독을 통해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한편 복음주의연합 소속 교회는 가나안장로교회, 뉴비전교회, 마리

에타장로교회, 복음동산장로교회, 성령사관학교, 아틀란타연합장로교회, 아틀란타한인장로교회, 아틀랜타중앙장로교회, 카리스교회, 크로스라인 교회 등이다.

CKAM은 아틀랜타노회에 소속돼 있지만 노회가 가진 교회개혁, 목회자 안수 등의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준노회’다. 한편, CKAM 측은 다음 정기모임을 오는 5월17일 아틀랜타중앙교회(담임 한병철 목사)에서 갖는다고 밝혔다.

윤수영 기자

“KAPC 뉴욕노회 제78회 정기노회...신임 노회장에 황경일 목사”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뉴욕노회 제78회 정기노회가 8일 오전 10시 뉴욕중앙산정현교회에서 개최, 신임노회장 황경일 목사 등 신임 임원 선출을 완료했다.

신임임원은 △노회장 황경일 목사 △부노회장 허윤준 목사 △서기 김성국 목사 △부서기 이종원 목사

△회록서기 임병순 목사 △부회록서기 정기태 목사 △회계 손경동 장로 등이다.

신임노회장 황경일 목사는 “뉴욕노회는 선배 목회자들이 중심이 돼 후배를 아끼고, 후배는 선배를 존중하는 좋은 장점이 있다”면서 “이런 장점을 살려 더욱 서로를 격려하고

교제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 나가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노회에서는 문영운 전도사의 목사안수식도 함께 진행됐다. 목사안수는 뉴욕주빌리교회 임시당회장 이규본 목사로부터 청원된 것으로 문영운 목사는 뉴욕주빌리교회 담임목사로 청빙된다. 김대원 기자

오네시모의 독백

김영언 저



2. PACTA SUNT SERVANDA

파타 순트 세르반다.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로마법의 제 1원칙이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씨자가 루비콘을 건너고 공화정이 무너진 자리에 제정이 시작되는 흐름속에서도, 로마가 다른 나라들과 결정적으로 달랐던 것은 이 사회를 지탱하는 지도자들이 Pacta Sunt Servanda의 원칙을 지켜왔기 때문이다.

다른 고대사회와 같이 절대적 군주가 혼자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비록 귀족과 유력가들 사이에 제한되었다 할지라도, 원로원과 평민출신의 집정관 사이에 견제와 균형을 틀을 만들고 구성원들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애를 썼기에 이 찬란한 로마에 수많은 이방 나라들이 굴복하여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왜 저 멀리 식민지 유대민족의 신을 모든 민족의 신, 그것도 유일신이 되도록 강요하는가. 수년 전 네로 황제에게 역모 혐의를 받고 스스로 혈관을 끊은 이 시대의 최고철학자 세네카가 일갈한 바 있다. 이방인인 나 역시 무엇보다 그

게 싫었다. 알고 싶었다. 왜인가. 왜 유일신 하나님이어야 하는가. 수많은 밤을 새웠다. 저들의 존경받는 조상 모세가 남긴 유대인의 법도

라 (저자주-모세오경)와 선지자들의 예언을 읽고 읽었다.

Pacta Sunt Servanda. 그것이였다. 언약의 신 하나님. 과연 어느 신이 피조물과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키고, 약속 지키기를 기대하는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빠지고,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는, 신 자신이 약속한 것을 이루기 위해, 자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와 죄를 대신 담당하겠다는 약속이 유대민족이 그동안 믿은 언약의 전부였다. 그러곤 예수가 이 세상에 살다 갔다.

이사야와 다윗을 통해 약속했던 구원의 약속을 신이 정말로 지킨 것이다. 베드로가 그것을 깨달은 것이다. 바울이 바로 그것을 본 것이다. 약속을 지키는 신. 그것도 인간의 약함을 알고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약속을 이행하는 신. 파타 순트 세르반다.

제정로마는 황제가 점점 신이 되 가면서 Pacta Sunt Servanda를 무너뜨리고 있다. 찬란한 로마는 그 전성기를 지나자마자 내리막을 걷고 있다. 얼마남지 않았다. 로마를 대신하여 이제 막 기독교라 불리며 세력을 넓혀가는 이 불온한 사상이 이 세상의 마음을 연게 될 날 이. <계속>

북한동포 위한 통곡기도회

시애틀연합장로교회에서...5월 1일 오후 6시에

시애틀 기독교회연합회(회장 변인복 목사)는 북한의 복음화와 평화 통일을 위해 오는 5월 1일(주일) 오후 6시, 시애틀 연합장로교회(담임 장윤기 목사)에서 시애틀 지역 통곡기도회를 개최한다.

시애틀 한인 목사회(회장 이현 목사)와 고향선교회(회장 최창호 목사)가 함께 준비하는 이번 기도회는 “그 날까지 선교연합(국제대표 손인식 목사)”와 “해외 3000인 목사단”도 참

석한다. 또한 전국 규모로 진행되는 이번 기도성회는 4월 텐버를 시작해, 5월 시애틀, 오레곤, 7월 워싱턴 DC와 볼티모어로 이어질 예정이다.

통곡기도회는 북한의 실상을 공유하고 탈북자 간증, 찬양, 통일을 위한 메시지, 통곡 기도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설교는 손인식 목사가 전하고, 탈북 간증자로는 김익두 목사의 증손자인 김정직 전도사가 나선다. 김브라이언 기자

개혁장로회대학교 총동문회 목회자 세미나 4월 4일 남가주비전교회에서

개혁장로회대학교·신학대학원(RPUS, Reformed Presbyterian University & Seminary) 총동문회가 ‘개혁주의 신학과 교리 정립’이란 주제로 동문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한다.

4월 4일 오전 10시 남가주비전교회(4010 W. Pico Bl. Los Angeles, CA 90019)에서 세미나가 열리며 식사와 동문 간의 친교 시간도 있다.

총동문회장 원사라 교수는 “목회자들이 참된 복음을 전하고 교회와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개혁주의 신학과 교리를 정립해야 한다”면서 이번 세미나의 목적을 소개했다.

한편 37년 총동문회 역사상 최초의 여성 회장인 원 교수는 총동문회의 주요 사역을 5가지로 소개했다.

먼저 사도행전 15장에 나온 예루살렘 총회처럼 신학과 교리를 정립하는 일이다. 이번 세미나도 목회자들에게 올바른 개혁주의 신학을 정립시키기 위한 노력이다. 둘째, 선교 사역과 복음 전파를 위해 선교사 동문 3명에게 선교 기금을 전달했고 셋째, 차세대 양성을 위해 총동문회 장학금을 조성해 학생들에게 전달했다. 넷째는 동성애 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처다. 총동문회는 최근 서철원 목사를 감사로 초청해 이와 관련된 세미나를 연 바 있다. 마지막은 구제 사역으로, 동문회는



개혁장로회대학교·신학대학원 총동문회장 원사라 교수와 부회장 김성일 목사

미자립교회 목회자 자녀나 사사모 들을 돕는 활동을 벌이려 한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직영신학교인 이 학교는 교단이 분열되기 전에는 국제개혁대학교였으나 현재는 교단 분열과 함께 새로운 명칭인 개혁장로회대학교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김준형 기자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효, 이원상, 박기호, 방지각, 김준연,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지사망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LA 동부지역

부활주일

연합 새벽예배

일시 3월 27일(주일)

시간 새벽 5시 30분

장소 아름다운교회 (고승희 목사)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예배 순서

- 사회 : 송재호 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 대표기도 : 김신일 목사 (유니온교회)
- 찬양 : 연합찬양대
- 설교 : 고태형 목사 (ECO 선한목자교회)
- 봉헌기도 : 최준우 목사 (엠마오장로교회)
- 특송
- 광고 : 고승희 목사 (아름다운교회)
- 축도 : 이승준 목사 (하나로커뮤니티교회)

*부활절 헌금은 LA 동부지역에 있는 기관이나 단체를 돕거나 장학금 사업에 사용됩니다.

나성동부지역교역자협의회

- 회장 : 송재호 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 부회장 : 김신일 목사 (유니온교회)
- 총무 : 최준우 목사 (엠마오장로교회)



신앙여인의 모범

잠언 31:10-31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한 가정은 남편과 아내라는 부부에서 시작하여 자녀가 더해져서 구성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가정에서 아내는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현숙한 여인이라 칭찬 받게 되는 아내는 어떻게 행하는 자인지 자세히 알려주십니다.

성경은 남자에게서 여자가 났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여자는 남자에게 소속된 반쪽이 됩니다.

에베소서에는 여자의 머리가 남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정에 주신 질서입니다. 현숙한 여인은 이를 우선적으로 인정하여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존중하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1. 현숙한 여인의 가정경제생활

10절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고 말씀합니다. 현숙한 여인은 어질고 깨끗한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현숙한 여인의 가치는 귀한 보석인 진주보다 더 값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주는 장식품에 불과하지만, 현숙한 여인은 신앙인격이 무르익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생활화되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영적인 소망이 무르익은 사람입니다. 그녀는 내세의 소망을 목적으로 살기에 육신의 남은 때를 남편과 자녀들을 위하여, 가난한 이웃을 위하여, 또 그리스도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부지런히 수고하며 일하게 됩니다.

11-13절에 이 여인은 남편의 신임을 얻습니다. 그녀가 묵묵히 아내의 역할을 잘 감당하니 남편이 아내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형성된 신앙인격이 그 남편에게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자기의 생활에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모습이 느껴지도록 삽니다. 그 사람이 바로 신앙으로 모범이 되는 여인의 모습입니다.

14-17절에 현숙한 여인은 참 부지런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새벽에 일찍 일어납니다.

집안의 일꾼을 모아 자기가 먼저 음식을 만들어서 아침을 먹이고 하루에 할 일을 일꾼들에게 분담시킵니다. 하루 동안 부지런히 해야 감당할 수 있는 일을 나누어 맡기므로 일꾼들이 딴 짓을 못하게 합니다.

또한 자신은 근검절약하면서 그 가정을 경제적으로 일으키는 역할을 잘 감당합니다. 힘으로 허리를 묶는다는 것은 경제적 힘이 있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그녀는 건강이 넘칠 뿐만 아니라 경제력도 튼튼하다는 뜻입니다.

18-20절에 그녀는 하나님을 섬길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밤낮 쉬지 않고 일하는 여인입니다.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자기 재산만 늘이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곤란한 사람들에게 손을 펴고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밉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수고와 사랑의 손길을 베풀므로, 더 많은 사람이 자신과 같은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라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중심으로 이기적이고 욕심을 부리는 사람은 손이 오그라져서 펼 줄 모릅니다. 밤낮 자기가 잡은 것을 놓칠까봐 힘을 다해 손을 쥐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더 채워 주시려고 해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못 받습니다. 밤낮 손에 쥐는 그것만 잡고 떨다가 죽는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2. 현숙한 여인의 가족 섬김

21절에는 “그 집 사람들은 다 흥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집 사람을 위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명한 여인은 자신의 가족들에게 흥색 옷을 입혔습니다. 흥색 옷은 왕이나 부자만 입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옷은 이중 천으로 되어 그 사이에 솜을 집어넣어 만듭니다. 붉은 옷을 입은 사람은 눈이 와도 옷이 따뜻하니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22절에서는 자신을 위하여 아름다운 방석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는다고 말씀합니다. 아름다운 방석은 자신의 지위를 말합니다. 즉, 자기 지위를 자기가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는다는 것은 계절에 맞게 입을 옷이 다 준비되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름에는 세마포를 입고, 겨울에는 자색 옷을 맞추어 입는 경제적 여유가 있음을 말합니다.

23절에 남편 내조에 대해서는 “그 남편은 그 땅의 장로로 더불어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아는 바가 되며”라고 말씀합니다. 당시에 성문은 장로들이 앉아서 백성들의 송사와 시비, 강탈에 대해 판결해 주는 법원의 역할을 했습니다.

현명한 여인은 남편을 그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 내조를 잘 한 것입니다. 남편을 최고의 지위에 올려놓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을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내조를 잘함으로 인해 도리어 자신의 지위를 올려놓게 됩니다. 남편이 어디에서나 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는다면, 아내가 되는 여인은 아무개의 사모님이란 존칭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은교회의 모든 딸들은 자기

남편을 험담하거나 낮추어 욕하는 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소속되어 있기에 남편이 낮아지면 그에 소속된 아내도 덩달아 비천해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남편의 지위가 올라가면 그 아내 역시도 당연히 그 지위가 올라갑니다.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24-27절까지는 남편의 지위를 높인 후에 다시 열심히 일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베로 옷을 지어 팔고, 가정의 산업을 일으킵니다. 자기가 솜을 잡고 가락을 뽑아서 실을 가지고 베를 만들어 무역하는데 팔고, 띠를 만들어 장사꾼에게 팔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에 옷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어 그 혀로 인애의 법을 가르친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그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지혜를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집안일을 살피고 게으르게 얻은 양식을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게으르게 얻은 양식을 부끄러워 할 줄 아는 근면 성실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3. 현숙한 여인이 받는 보상

28절에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사례하며”라고 말씀합니다.

자녀들이 어머니를 향하여 감사의 인사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최고의 어머니이며, 가장 존경하는 어머니라고 자랑하게 됩니다.

남편 역시도 아내를 향한 칭찬이 마르지 않습니다. 세상에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더 뛰어나다고 감사를 표하게 됩니다. 남편은 아내로 인하여 현재의 자신의 모습을 갖추 수 있었음을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며 칭찬하는 것입니다.

는 것입니다. 현숙한 여인은 남편에게 이런 칭찬을 들을 때에 비로소 자기 인생의 최고의 보람을 느끼게 되고, 그동안 수고한 모든 고생에 보상을 받게 됩니다.

30절에 “고운 것도 거저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모습을 위해 얼굴 뼈를 깎고, 다른 곳의 살을 뜯어다 붙이는 성형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겉치레보다 속사람인 영적신앙이 성숙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얼마나 보람되고 영광스런 일입니까? 그가 행한 일로 인해 열매를 얻게 되고, 모든 사람이 모이는 성문에서 현숙한 여인이라는 칭찬을 받게 됩니다. 이런 영광이 우리의 삶에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교회의 각 가정에서는 아내들이 행복하고 칭찬을 받고 영광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남편을 신앙인격으로 잘 뒷바라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남편이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쓰임 받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남편의 지위가 올라감에 따라 아내 역시도 거기에 따르는 대접이 필연적으로 달라집니다.

자식들도 신앙 인격적 수양으로 양육하여 예수님 마음에 드는 자녀들로 양육해야 합니다. 그런 자녀들이 교회에서 요긴하게 쓰임 받는 일꾼이 될 수 있고, 하나님 섬기는 복을 자자손손 이어 갈 수 있습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V 한국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복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V 미국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1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AM1310 화요일 오후 7시30분
미국 신문 설교		AM1650 LA 미주 기독교방송	금요일 오후 2시30분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샌퍼난도 벨리 한인교회 교역자협의회〉 주최

2016년 연합 부활절 새벽예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참된 의미를 말씀과 찬양으로 오늘에 되새기며, 벨리 성시화를 위해 기도하는 연합예배에 벨리 성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벨리 한인교회 교역자협의회 2016년 임원진

- 일시 : 2016년 3월 27일(주일) 새벽 5시30분
- 장소 : 은혜와 평강교회 (곽덕근 목사 시무)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 문의 : T(818)894-9266

- 회 장 : 김영일 목사 (벨리드림교회)
- 부회장 : 문일명 목사 (한우리장로교회)
- 총 무 : 서오석 목사 (나성평화교회)
- 서 기 : 김선일 목사 (남가주마라톤교회)
- 회 계 : 나형길 목사 (그이름교회)
- 장학부장 : 김인식 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 친교부장 : 하모세 목사 (고백하는교회)

샌퍼난도 벨리지역 한인교회 교역자협의회

Christian Preschool 원장 초빙

2016학기 Christian Preschool 자체운영과 관련하여 원장을 초빙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린이들을 돌보며 Preschool 운영에 열정을 가지신 분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자 격: 원장 Director License 소지자
State Policy 규정에 의해 Preschool 운영에
결격사유가 없는 유경험자
한국어 / 영어 Bilingual 필수

제출서류: 이력서, 신앙고백서, 자기소개서

제 출 처: 선한목자교회
우편접수: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이메일접수: info@sunhanchurch.com

문 의: (909) 591-6500



www.sunhanchurch.com

토브 성경 연구 Tov Bible Study



강신권 목사

- 히브리식 사고 : 3통 사고
- 히브리식 체현 : 5특체현으로 성경 원전 해석
- 현재 : 요한계시록 특강(매주 수요일 7:30pm)
- 강사 : 강신권 목사
- 장소 : WBPC 세계성경장로교회

Tel(562)761-5242
Tel(213)739-0403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성경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성경공부를 통해 영성과 인성교육을 하며, 골프를 통해 집중력과 체력향상을 시켜줍니다. 귀한 자녀에게 이 두 가지를 함께 가르치는 전문인에게 믿고 맡겨주십시오. 달라지는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되실 겁니다. *픽업가능

- 문의 : 최 제이콥 Professional (310-598-0746)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 Players Tour
12~14살, 18홀, 1~2명 모집
- 피아노반주 가능한 전도사님을 찾습니다.

<최 제이콥>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ae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신학박사(D.D.)
현 '제일좋은 예닮교회' 담임목사

십자가 중심으로 살자



정우성 목사
남가주광명교회

사순절 기간의 핵심은 우리를 위하여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시간이다.

우리는 인공지능 알고고와 바둑 9단 이세돌의 바둑 시합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한 주를 보냈다.

현실은 생각보다는 컴퓨터화되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빠르고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

이런 생활속에서 사는 우리는 십자가라는 단어가 우리 마음에 그토록 간절하게 느껴져 오는가?

십자가는 구원의 신비요 능력이기 때문에 성령을 통하여 체험되지 않으면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우리는 지금 꿈을 꾸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살고 있다. 그런데 예수님의 꿈은 바로 십자가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예수님의 오심과 꿈은 십자가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심을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다. 사실 내가 죽는다는 것을 알고 굳게 생활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다. 죽음이 자연사도 아니고 병도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는다는 것을 알고 일상 생활을 하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예수님은 비참하게 십자가 위에서 처형될 것을 아셨다. 아시면서도 왜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셔

어진다. 교회의 중심은 십자가다. 제자들의 표시는 십자가다. 말 그대로 예수 잘 믿으려면 고난이 따른다. 세상에서 신앙생활 잘 한다는 것은 고통과 눈물이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딤후 2:8)고 말씀하신다.

우리의 마인드 세트를 십자가 채널에 맞추어야 한다. 잘 하고 있는가? 십자가로 돌아가야 한다.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가? 십자가로 돌아가야 한다. 십자가를 지고 싶은?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 예수님의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막14:38)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 신앙이 무엇인지 깨달으라.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진정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다. 십자가 중심으로 돌아가면 아직도 믿지 않는 영혼들이 불쌍하게 보인다. 영혼 사랑의 마음이 불처럼 타오른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묵상할 때 감동이 찾아오면 얼마나 좋을까? 십자가를 기억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영혼의 세포에 밀려오면 얼마나 기쁠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얼마나 황홀한 인생이 될까? 이와같은 행복한 인생을 누리며 살고 싶지 않은가?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살자.

허탈감의 출처



김영길 목사
감사한인교회

살다보면 허탈감이 빠질 때가 있다. 믿었던 친구에게 속아서 적잖은 재물을 잃어버렸을 때라든지, 천직으로 알고 충성하던 직장에서 어느 날 갑자기 해고되었을 때라든지, 혹은 사랑하는 배우자로부터 갈라서는 통고를 받았을 때에, 사람들은 삶의 텅 빈 허탈감과 처절한 외로움, 그리고 그 모든 감정들이 혼합되어 밀려오는 극한적인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다.

지난 주간, 좁게는 한국, 넓게는 세계적으로 이런 허탈감이 퍼져나갔다. 그것은 인간이 만든 인공지능 앞에 인간 자신이 패배했기 때문이다.

20여 년 전인 1997년에 '딥 블루(Deep Blue)'라는 인공지능이 체스(서양장기)의 세계챔피언을 이긴 적이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딥 마인드(Deep Mind)'라는 인공지능이 바둑계의 거장을 이겼다.

사람들은 아무리 잘 만들어진 인공지능이라도 바둑의 고수는 쉽게 이길 수 없으리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바둑 게임에는 우주에 있는 모든 원자들의 수보다 더 많은 10의 170승에 달하는 변수가 있기 때문이다. 10의 170승은 1 다음에 0을 170개 놓은 숫자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

는 많은 천재들이 지혜를 모아 만든 하나의 기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기계는 언제나 사람을 능가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기계와 사람의 경쟁은 마치 자동차와 사람 사이에 누가 더 빨리 가느냐를 가늠하는 것만큼이나 불공정한 게임이다. '딥 마인드'도 사람이 만든 컴퓨터 기계에 불과하다. 기계가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다. 그 중의 하나가 창조주 하나님과의 교제다. 기계는 십자가의 사랑을 알 수가 없다. 죄책감을 가지고 회개할 수도 없다. 선한 일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정신이 무엇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 회개하고 변화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간다. '딥 마인드'는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한다. '딥 마인드'는 비인칭(非人稱)의 '그것(it)'에 불과하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녀들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교만한 마음에서 헛됨이 빠져나갈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허탈감에 사로잡힌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하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자신의 무한한 가치를 재확인한다.

알파고의 출현



박용덕 목사
남가주빛내리교회

바둑의 열기가 세계를 흔들어 놓았다. 어찌 보면 알파고(AlphaGo)의 출현이 세상을 놀라게 하고 있는 것이다.

알파고란 구글에 소속된 스타트업 딥 마인드(Deep Mind)가 개발한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으로, 완벽하게 기획된 예측 시스템을 바탕으로 바둑의 천재라고 일컬어지는 이세돌 9단에게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며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알파고란 헬리어 '알파(Alpha)'와 한문의 '고(碁, 기의 일본 발음)를 합성한 말로 '바둑에서 첫째가는 것'이라는 의미다.

일반적으로 프로 바둑기사는 다음 수를 놓기 위해 보통 초당 100개의 경우의 수를 고려하는데, 알파고는 1,200여 대의 중앙처리장치(CPU)가 연결된 슈퍼컴퓨터로, 초당 경우의 수 10만 개를 검색할 수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바둑은 돌을 놓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최대 250의 150제곱에 달하는데, 이는 지구를 포함한 우주의 모든 원자 수(약 10의 80제곱)를 합친 것보다도 월등히 많다고 한다.

이를 위해 알파고는 딥 러닝(deep

의 승리일까? 그렇다. 이 엄청난 초과학적 산물인 알파고는 인간의 두뇌를 뛰어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컴퓨터가 사람을 뛰어 넘을 수는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그들에게는 인간의 고유 영역인 다양한 감정의 표현을 할 수가 없다. 둘째, 어떤 목적을 위한 한 방향의 특별함을 있을 수 있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른 영역들과 비교하면 입력한 학습 이외에는 문외한일 수밖에 없다. 셋째, 알파고가 아무리 뛰어나도 사람의 손이 가지 않으면 스스로 행동할 수 없다. 넷째, 알파고가 사람 이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그에게는 영혼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영혼 없는 사람을 일컫어 좀비 인간이라 하듯이 좀비 인공지능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알파고를 두려워 할 것이 아니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마10:28) 하며, 참 지혜는 과학도 중요하지만, 과학을 경외하기 보다는 과학을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learning)이라는 방법을 채택했는데, 딥 러닝이란 컴퓨터가 여러 데이터를 이용해 마치 사람처럼 스스로 학습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인공 신경망 구조를 기반으로 한 기계 학습 기술을 일컫는다. 사실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결은 어떤 숫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계산기와 사람의 대결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간단한 숫자는 사람의 머리도 무시할 수 없지만 복잡한 계산은 아무래도 계산기를 따라갈 수 없듯이, 아쉽게는 하지만 알파고의 인공지능에 이세돌 9단이 패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는 인간을 향한 과학

100% 천연성분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당뇨! 원인 기능 개선제

PRO-Z GOLD



Special Price

✓ 미국 독점 출시 기념 파격 세일



송해선생님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프로지골드

1병 \$89 + tax 3병 \$249 + tax 6병 \$474 + tax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당뇨병의 원인?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 즉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가 지속할 때를 말합니다. 음식을 섭취 후 혈액으로 들어온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췌장 베타세포에서 나오는 인슐린이란 호르몬이 필수입니다. 만약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분비된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당뇨병의 치료방법은 있는가?

당뇨병은 조절은 할 수 있으나 완치는 불가능하며 단지 당뇨병의 진행을 정지시키고, 동시에 당뇨로 인한 합병증의 발생 및 진전을 예방하는 것이 일반이론입니다. 현재 당뇨 환자들이 주로 복용하는 당뇨약들은 천연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 장기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심장부종, 신장부종, 간독성)과 방광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유수의 대학의 연구팀들의 연구결과로 드러났습니다.

송문기 박사팀은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당뇨병 회복의 새로운 메카니즘 '프로지'

'프로지'는 혈당강화제와는 달리 당뇨의 근본원인(인슐린 저항성 및 췌장 베타세포 파괴에 의한 인슐린 분비기능저하)을 해결하는 메카니즘입니다. 당뇨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생긴 결과입니다.

아연은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필수미네랄입니다. 포도당을 세포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인슐린이 하는데, 당뇨 환자들은 혈액 속에 여러 가지 요인(비만, 과음, 운동부족, 스트레스)에 의해 인슐린 반응도가 낮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IDE(Insulin Degradation Enzyme)라는 소화효소가 필수적인데 이 소화효소의 주성분이 아연이며, 아연은 췌장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저장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신 합성물질(CHP Plus Zinc) 프로지는 우리 몸속에서 근육과 지방세포로 아연을 운반하여 아연의 신진대사 활성화를 통한 인슐린수용체의 활성화 및 인슐린 수용체의 생성을 촉진함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아연이 당대사와 밀접하다면, 왜 아연으로 만든 당뇨약은 없나요?

아연은 특성상 섭취 시 인체 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고 흡수율이 떨어진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음식에도 굴이나 소고기 등에 아연이 존재하지만, 섭취 후 3~4시간이면 소변으로 배출되고 몸에 흡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연이 췌장 세포 기능 복원이나, 근육세포의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해당 세포내 아연흡수율이 획기적으로 증가하여야 성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계는 지금까지 아연 흡수율 제고 물질이나 방법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송문기 박사의 신합성물질 '프로지'는 동물의 전립선에서 추출한 물질(CHP)을 아연을 킬레이트시킴으로써 아연이 일정시간 인체에 머물며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당의 대사를 도와 몸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송문기 박사와 연구팀은 한국인 최초로 미 정부 지원으로 이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취득하고 당뇨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송문기 박사

UCLA 의과대학 연구 교수
미, 재향 군인 병원, 수석 연구원
세계 3대 인명사전 Marquis Who's who에 등재
40년간 당뇨연구에 매진한 대한민국 대표 과학자

프로지를 개발한 송문기 박사는 인류 복지 건강에 위해가 되는 당뇨, 비만, 알츠하이머(치매)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도록 40여 년간을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그는 하와이대학, UCLA 대학교수 미 재향군인병원(US VA Hospital)에서 근무했으며, 가장 시급한 당뇨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미국 연방식품의약품(FDA)로부터 신약 임상시험을 진행중입니다. 그 전에 FDA의 독성 TEST, 국제규격에 부합되는 임상 TEST를 거쳐 FDA로부터 신약판매 전에 건강기능식품(PRO-Z)으로 허가를 받아 당뇨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당뇨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당뇨원인 기능개선제' 프로지를 출시했습니다. 송문기 박사는 체내 아연 대사와 관련한 각종 연구성과를 통해 세계 3대 100인 인명사전 중 가장 권위 있는 Marquis Who's Who에 등재된 인물입니다. 현재 세계적인 과학지인 NATURE 등 세계 유수 연구 관련 기관의 심사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판매점

세크라멘토	916.363.2378	Smile Home Shopping
하와이	808.947.8086	Herb Land
달라스	972.620.2900	Royal Health Department
시애틀	206.229.5466	Health Village



PRO-Z

한국 50만명 판매 SALE 1병 \$69 + tax 3병 \$179 + tax 6병 \$342 + tax

타주 대리점 및 프로지셀러모집중

213.434.1170

www.prozusa.com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기하성 서대문측 비대위측 임시총회에서 참석 총대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통성기도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쿼어문화축제에 반대하기 위해 서울광장에 모인 교인들.

“기하성 서대문측 비대위, 별도 집행부 구성”

제64차 제2회 임시총회 개최...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 만들 것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기하성) 서대문측(총회장 서안식 목사) 교단의 개혁을 촉구해 온 비대위측이 임시총회를 열고 별도의 집행부를 구성, 교단 분열이 현실화했다. 기하성 비대위측은 14일 평택순복음교회(담임 강현식 목사)에서 제64차 제2회 임시총회를 개최, 서안식 총회장을 불신임하고 부총회장 심덕원 목사를 총회장 직무대행으로 세웠다.

이날 임시총회에는 기하성재단법인인사회(이사장 박광수 목사)와 선교법인인사회(이사장 박정근 목사)가 지지를 선언해, 기하성 교단의 역사와 정통성 및 재산이 비대위측에 있다고 무게를 실어 줬다. 이와 함께 증경총회장, 증경지방회장, 실행위원, 총대 대다수가 참석했다. 법원은 서안식 총회장이 제기한 '임시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임시총회에서는 비대위측을 제명·출교한 총회장 서안식 목사, 회계 유영희 목사, 재무 김서호 목사를 불신임하고, 총회장 직무대행 심덕원 목사, 회계 직무대행 송시웅 목사, 재무 직무대행 백용기 목사를 각각 인준했다. 또한 각국과 위원회, 지방회를 새롭게 정비하기로 했으며, 특히 '카지노 도박 및 공금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성배 목사를 비롯해 (후)총회 행위를 한 이들에 대해 총회 재판위원회에 기소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기하성 총회 비전 선언문을 통해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라며 "불의와 불법, 거짓과 정치 권력 남용으로 파산된 압축의 역사에서 총회원들의 힘과 지혜로 회복과 비전을 선포하는, 기하성 교단의 종교개혁의 날"이라고 했다.

임시총회 개최 배경에 대해서는 "기하성 총회는 1953년 4월 8일 서울 용산남부교회에서 창립된 이래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운동으로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를 주도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단이지만, 작금에는 한국교회가 걱정하는 총회로 추락했다"며 "한 사람의 불의와 불법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으며, 총회회관과 순종학교는 수백억원의 부채로 파산 위기에 처했음에도 총회장을 비롯한 일부 임원들이 권력을 남용해 개혁 요구를 묵살하고 불법을 자행하므로 (우리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했다.

참석자들은 "총회의 진정한 주인은 정치 권력이 아니라 총회원임을 선언한다"며 "기하성 총회의 회복과 개혁을 위해 침묵하거나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비대위가 14일 임시총회를 개최한 데 대해, 총회측은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총회원 여러분께서는 바른 분별력을 갖고, 불법에 절

대 동조치 마시고 정치지방회와 정치총회를 통해 교단이 바로 서도록 굳게 자리를 지켜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총회측은 14일 서안식 총회장 외 임원 일동 명의로 총회원들에게 보낸 글을 통해 "(비대위는) 분명히 임시총회를 소집했다"고 하면서, "총회원 대의원 목사님 장로님 뜻이 있는 모든 분들 다 참여하라고 하고 있다"며 "그러나 임시총회라면 총대들만 참석해야 한다. 저들은 불법 동원을 통해 분명 교단을 분열시켜 창립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총회측은 재판 결과 중 먼저 비대위측이 제기한 '정기실행위원회 개최 금지 가처분' 건이 기각된 것에 대해서는 "총회의 정기실행위원회가 합법이며, 전날 비대위의 임시실행위원회는 불법이라는 것"이라고, 총회측이 제기한 '임시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이 기각된 데 대해서는 "비대위의 임시총회가 합법이라는 판결이 아니라, 총회가 하자 있는 저들의 총회에 대해서는 본안소송과 가처분으로 효력을 정지할 수 있기에, 단순한 개혁을 위한 모임을 금지하도록 하라는 것까지는 현재 단계에서 종교단체 내부의 의사 결정에 과도한 제한을 할 우려가 있어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류재광·이대웅 기자

“서울광장, 동성애 축제 우려”

쿼어축제 축 올해 6월 사용 신청...한동위 불허 요청

[1면으로부터 계속] 제17회 쿼어 문화축제 측은 오는 6월 8일(수)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쿼어축제 개막식을 진행하고, 6월 9일(목)에서 10일(금)까지 이틀간 오전 9시~오후 8시 동성애에 관한 예술작가 사진전을 연다. 또 6월 11일(토)에는 오전 9시~오후 7시 분행사에 이어 퍼레이드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한동위는 박원순 서울시장 앞으로 발송한 긴급 공문을 통

해 지난해 쿼어축제의 폐해와 심각성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이는 서울광장 사용 조례에 전적으로 위배됨을 강조했다. 아울러 근거 자료를 제출하고, 서울광장 사용을 불허하도록 요청했다.

한동위는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면담이 성사되면 상세한 문제들을 제기해, 서울광장 사용 신청을 반려하도록 부탁할 예정이다.

이대웅 기자

“對사회 신뢰회복은 지역마을목회로”

예장통합 총회... '지역마을목회 컨퍼런스' 개최



한국일교수 장신대 선교신학

비판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對사회적인 신뢰도를 잃어버린 한국교회, '지역마을목회'는 대안이 될 수 있을까? 한국일교수(장신대 선교신학)는 10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예장통합 총회 '지역마을목회 컨퍼런스'에서 주제 강연을 통해 "그렇다"고 대답했다.

한 교수는 "이제 한국교회가 지역주민을 전도 대상으로 여기기 전에, 먼저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운동을 전개해야 하며, 그것을 위해 지역사회와 소통하면서 더불어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했다.

그런 점에서 한 교수는 "지역교회가 선교적 교회관점에서 마을 만들기 참여하는 것은 선교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면서 "교회 안

에 갇혀있던 교회중심의 목회를 지역 마을목회로 전환해야 하는 이유는 신학적으로도 타당한 근거를 갖는다"고 했다.

그는 지역사회가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요3:16)이며, 예수님이 복음전파와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해 제자들을 파송한 선교현장"이라고 했다.

한국일교수는 이를 위해 △교회의 자원을 선교적 동력으로 활용하라 △교회조직을 교회 안에 일을 행하는 내부적 구조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선교적 구조로 전환하라 △성도를 지역교회와 사회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지역사회 선교사로 파송하라 △목회자의 리더십을 교회 안의 성도를 돌보는 목회 리더십에서 교회 밖의 주민까지 목회의 대상으로 여기는 선교적 목회 리더십으로 확장하라고 당부했다.

채영남 목사(예장통합 총회장)는 인사말을 통해 "지역사회를 향한 풀뿌리 선교를 통해 지역사회와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면서 이번 행사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수민 기자

“신촌성결교회, 가나에 현지어 성경 3만여 권 기증”

꿈 잃은 청소년들과 학대받는 여성들 위해 보금

대한성서공회(이사장 이정익 목사)는 용인시 반포센터에서 신촌성결교회(담임 이정익 목사) 후원으로 가나 트위 아잔테어 성경 20,736부, 트위 아쿠아펠어 성경 10,000부를 보내는 기증식을 2일 개최했다.

신촌성결교회는 2016년 비전 중

해외선교의 일환으로 '가나에 성경 보내기' 행사를 1월 진행했다. 선교 주일을 맞아 전 교인에게 이를 소개했고, 그 열매로 총 30,736부를 보낼 수 있게 됐다.

가나는 노예무역과 오랜 식민 지배로 큰 아픔을 갖고 있다. 2007년 원

유가 발견되면서 외형적 경제 지표는 나아지고 있으나, 국민 대다수는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가나의 많은 젊은이들과 여성은 가난과 가정 불화, 여러 형태의 차별과 폭력 속에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희망 없이 살아가고 있다. 이대웅 기자

2016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p>AMERICAN BAPTIST SEMINARY OF THE WEST, BERKELEY, CA</p> <p>L.A Campus 목회학 박사과정 (매년 1, 6월 통역제공, GTU 및 ATS 정회원)</p> <p>Dr. Hyo Shick Pai: drhyopai@gmail.com ABSW President: Dr. Paul Martin www.absw.edu</p>	<p>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기독교대학(ABU)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지체 발행 인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시역 가능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입학상담: 김시은 목사 712131407-4699 <p>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류종길 박사, 이사장: 김광열 목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gu.edu / admissionsmaster@gmail.com</p>	<p>미주대한신학대학</p> <p>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십의 준비.</p> <p>1325 12th Ave.,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1-9819</p>	<p>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p> <p>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인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p> <p>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p>
<p>미주충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p> <p>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p> <p>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p>	<p>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p> <p>TRACS 정회원 인준 특전: Sevis I-20 발행/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있음 학사과정: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p> <p>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p>	<p>솔로몬대학교</p> <p>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p> <p>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리아스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p>	<p>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p> <p>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오프스 &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p> <p>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p>
<p>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p> <p>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박사</p> <p>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p>	<p>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p> <p>With the world! To the world!</p> <p>17002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p>	<p>FULLER THEOLOGICAL SEMINARY</p> <p>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p> <p>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p>	<p>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p> <p>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p> <p>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p>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 ©빌리그레함전도협회

“하나님을 政治에 다시 모셔와야”

프랭클린 그레함...기독교인들에게 정치참여와 투표 독려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빌리그레함전도협회 회장)가 최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희망은 하나님뿐”이라며 “우리가 하나님을 정치 논쟁과 대중적 영역에서 빼 버렸다. 난 하나님을 다시 모셔 오고 싶다”고 전했다.

그레함 목사는 도널드 트럼프가 공화당의 막강한 대선 후보로 떠오른 현상에 대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정치를 통해 먹고 산다. 현재 상황이 그라하다고 본다”면서 “그들은 정치와 함께 강력한 리더십도 원한다”고 말했다.

그레함 목사는 최근까지 ‘디시전아메리카’(Decision America) 캠페인의 일환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기독교인들에게 정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그 목적은 정치권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되돌려 놓겠다는 것이다. 그는 작년 12월 중순 공화당 주도로 낙태 지원을 포함한 연방정부 일괄 지출 법안이 통과되자 공화당을 탈당했다.

그는 이에 대해 “내가 50개 주를 모두 다

니면서 사람들에게 기도와 투표를 간절히 요청하게 될 줄은 몰랐다. 내가 어느 한 단체를 위해 캠페인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란다. 나는 그렇지 않다. 난 하나님을 위해 이 일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대중에게 50개 주를 위한 기도와 캠페인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이는 느헤미야서 1장에서 느헤미야가 했던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 “난 공화당에 어떤 희망도 걸고 있지 않다. 민주당에 대해서도 그렇다. 이 나라의 오직 한 가지 희망은 하나님 뿐”이라며 “기독교인들이 이번 대선뿐 아니라 지역 선거 등에도 동참하길 원한다. 기독교인 시장, 기독교인 시의원, 기독교인 학교장들이 선출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나는 기독교인들이 공직에 출마하길 원하고, 그들을 위해 투표하고 싶다”고 덧붙이 기도 했다.

“이슬람에 대한 美國의 가장 큰 약점”

전 무슬림 출신 알리...정치적 정당성이 미국을 힘들게 해



네덜란드 하원의원 출신인 아얀 히르시 알리(Ayaan Hirsi Ali) ©트위터

최근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소말리아 출신의 전 무슬림이자 베스트작가이며 네덜란드 하원의원 출신인 아얀 히르시 알리(Ayaan Hirsi Ali)는 “정치적 정당성”이 미국과 다른 서구 국가들이 이슬람 강경 원리주의에 따른 테러리즘과 그 정치적 철학

의 공격 증가 상황에서 이를 물리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알리는 4일 매릴랜드 주에서 열린 보수주의정치행동회의(CPAC: Conservative Political Action Conference) 패널 토론에 참여해 이 같이 밝혔다.

또 알리는 “이슬람에 대해 지적하는 이들은 이슬람 포비아로 낙인찍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말리아 무슬림 가정에서 자란 46세 알리는 여성 할례를 당했으며, 먼 친척과 강제 결혼을 시키려는 아버지를 피해 네덜란드로 도망갔다.

이후 2002년 이슬람 신앙을 버리고 지금은 이슬람을 비판하는 4권의 책을 저술하는 등 이슬람의 진실을 폭로하고 밝히는 데 힘쓰고 있다.

알리는 서구의 시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이슬람에 대해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면서 “이슬람 무함마드가 메디나에서 만든 이슬람 정치적 교리인 과격한 지하디즘(jihadis)에 대한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알리는 또 “이슬람 강경주의자들이 정치적 정당성을 이용해 문자 그대로 서구의 시스템 내부에서부터 침식해 들어가고 있으며 시스템을 파괴(살해)하고 있다”면서 “그들(이슬람 강경주의자들이) 우리를 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알리는 “그들이 우리의 약점을 이용하고 있으며, 정치적 정당성이 바로 그 약점이다”라고 강조했다.

알리는 또 “이슬람 강경주의자들이 정치적 정당성을 이용해 문자 그대로 서구의 시스템 내부에서부터 침식해 들어가고 있으며 시스템을 파괴(살해)하고 있다”면서 “그들(이슬람 강경주의자들이) 우리를 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알리는 “그들이 우리의 약점을 이용하고 있으며, 정치적 정당성이 바로 그 약점이다”라고 강조했다.

“美國기독교인들, 진정한 부흥 부족해”

사예드 아브디니...이란 기독교인들 하루 5시간 기도해



사예드 아브디니 목사. ©CP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최근 사예드 아브디니 목사가 5일 리버티대학에 방문해 “미국 기독교인들에게 부족한 것은 ‘진정한 부흥’이며 이란 기독교인들은 하루에 다섯 시간 기도하고 전도에 항상 힘쓴다”고 말했다.

아브디니 목사는 데이빗 나세르(David Nasser) 리버티대학교(Liberty University) 영성개발원 부회장과 그의 대담 중에 그가 “학생들 중 한 명에게 이 학교에 부흥이 있는지를 질문했고 그 학생은 “그렇다. 좋은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으며 사람들은 주님을 섬기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아브디니 목사는 ‘아주 훌륭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부흥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아브디니 목사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란의 새로운 기독교 신앙인은 적어도 하루에 5시간 동안 기도하고 그들의 신앙을 위해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한다”면서 만일 우리가 그들에게 부흥에 대해 묻는다면 “그들은 ‘우리는 성경을 잘 모른다. 전도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고, 복음을 전하지도 못한다. 우리는 예배드릴 교회를 찾을 수도 없어서 매우 슬프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나는 여기서 부흥을 본다”라고 밝혔다.

이러 “미국 기독교인들은 그 수가 많고 매우 좋은 사람들이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마음에서부터 부흥이 필요하다.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부흥이 시작된다”면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 오히려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곳에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브디니 목사는 3년 6개월 동안 기독교적 신을 지키기 위해 이란 감옥에 투옥됐다 지난 1월에 석방됐다.

장소피아 기자



<p>LA 지역</p> <p>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점심예배 오후 2:22 오전 6:20(토) 주일-비점중학교 / 토요일-17와버린트코너 주중세벽-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p> <p>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p> <p>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배우고 이단2세를 책임지며, 이단기정을 치료하며, 선교영광을 순종하는 교회</p> <p>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주중연락처 T. (213)386-2233</p>	<p>주일예배 오전 11:2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주일학교 오전 11:20 토요일 새벽기도회 오전 6:00 학생 청년부 예배 오전 11:20</p> <p>연제선 담임목사</p> <p>LA 온하늘교회</p> <p>1540 S. St Andrews Pl., Los Angeles, CA 90019 T.(818)983-9024</p>
<p>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수요기도회 오후 7:30</p> <p>장태원 담임목사</p> <p>LA세계선교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p> <p>1025 S Catalina St, Los Angeles, CA 90006 T.(213) 909-6473 / www.missionla.org</p>	<p>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연합세벽 오전 6:20</p> <p>한천영 담임목사</p> <p>갈릴리선교교회 함께웃고 함께유는 공동체</p> <p>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ch.com</p>
<p>주일 오후 4시 새벽 오전 5:30 (월-토) 저녁 오후 7:30 (화, 목, 금)</p> <p>엘리아 김 담임목사</p> <p>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이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p> <p>978 S. Hoover St. #203, LA, CA 90006 T. (213) 272-6031</p>	<p>1부예배 오전 7:40 EM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3부예배 오전 11:45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p> <p>진유철 담임목사</p> <p>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p> <p>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p>
<p>주일예배1부 오전 8: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2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주일예배3부 오전 11:00</p> <p>한기형 담임목사</p> <p>나성동산교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p> <p>2525 W. James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213) 487-3920</p>	<p>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유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토 오전 6:30 EM 예배 오후 1:00 토요일부부 토 오전 9:30-12:30 한어청년부 오후 1:30 아미아기도모임 수요일 10:30</p> <p>서건우 담임목사</p> <p>나성서부교회 평안하여 든든히 사가는 교회</p> <p>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T. (323)939-7323 / www.kwpcpla.org</p>
<p>1부예배 오전 7:30 성인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30 한어청년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후 1:00 찬양예배 오후 3: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p> <p>박현성 담임목사</p> <p>나성열린문교회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p> <p>328 W. 6th St., LA, CA 90020 T. (213) 383-2600, (213) 383-2602 / laopendoor.org</p>	<p>1부예배 오전 8:00 대학부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저녁 7:30(목) 유초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화-금) 중고등부 오전 10:45 6:00(토)</p> <p>김영철 담임목사</p> <p>나성제일교회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의 교회</p> <p>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p>
<p>1부예배 오전 9:00 유초등부·중고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 주일 오후 1:30 수요집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p> <p>정우성 담임목사</p> <p>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샤하는 은혜공동체</p> <p>1153 Valencia St., Los Angeles, CA 90015 T.(213)598-0191</p>	<p>주일예배 오전 10:30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10:30 EM예배 주일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청년부 예배 주일 오후 1:30 목요일양배(목요일)오후 7:30 교회학교 주일 오전 10:30</p> <p>김경철 담임목사</p> <p>산타모니카교회 축도록 섬기는 교회</p> <p>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502-9999 / www.smkcs.com</p>
<p>1부예배 오전 09: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EM예배 오전 10:00</p> <p>조인수 담임목사</p> <p>써니사이드교회 하루를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예수 안에서 행복의 공동체</p> <p>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p>	<p>주일예배 오후 1:30 성경공부 주일 오후 12:00 토요일복음 모임 오전 11:00</p> <p>김영구 담임목사</p> <p>나눔장로교회 엔키아선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p> <p>3407 W. 6th St. #804, Los Angeles, CA 90020 T. (310) 404-6219</p>
<p>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p> <p>김요섭 담임목사</p> <p>열매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p> <p>3960 Wilshire Blvd. #505, Los Angeles, CA 90010 (월/화/목/토/일) T.(213)380-0071</p>	<p>1부예배 오전 8:30 금요일예배 오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30</p> <p>정장수 담임목사</p> <p>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p> <p>311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T.(213)387-1700 C.(213)500-4737 / olympic-church.org</p>
<p>무료 사회복지 상담 및 대행 (정부 배넬릿 전환) 음식 보조 프로그램(Food Stamp), 메디칼, 임신부 메디칼</p> <p>이경애 목사, 이은우 목사</p> <p>요한 선교교회</p> <p>gkal44@yahoo.com Tel: (213) 703-6863 522 N. Hobart Blvd., Los Angeles, CA 90004</p>	<p>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p> <p>류종길 담임목사</p> <p>임마누엘선교교회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p> <p>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 / www.laimch.com</p>
<p>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p> <p>신승훈 담임목사</p> <p>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p> <p>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p>	<p>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중고등부 오전 11:00 오전 6:30 (토)</p> <p>이명수 담임목사</p> <p>청운교회 선교에 흠뻑 소.친.초.진.초.의.호를.바른.교회관의.호를</p> <p>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p>
<p>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p> <p>민중기 담임목사</p> <p>충현선교교회 불러세(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p> <p>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 549-9191 / F.(818) 549-9199 / choonghyun.org</p>	<p>주일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양기도회 오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00 (토) 중고등부 오전 11:00</p> <p>곽부환 담임목사</p> <p>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p> <p>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p>
<p>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p> <p>강지현 담임목사</p> <p>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애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p> <p>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p>	<p>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p> <p>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p>
<p>김범수 치과 General & Cosmetic Dentistry</p> <p>Bryan Kim D.M.D.</p> <p>김범수 치과</p> <p>1011 S. Arlington Ave., Los Angeles, CA 90019 T.(213)389-0937, (213)389-0938 F.(323)735.1937</p>	<p>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읽는 90일 성경일독 대표 주해홍 목사</p> <p>오늘 성경 읽으셨나요?</p> <p>에스라성경통독사역원 Ezra Bible Reading Ministry</p> <p>1661 Raymond Ave. #265, Anaheim, CA 92801 www.ezrabiblereading.com</p>

LA 동부, 팜스프링스 지역

고태형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1:00, 금요일에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ECO선한목자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 교회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 591-6500 sunhanchurch.org

이희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수요양성캠프 오후 8: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갯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성경공부 오전 9:30 주일학교 - 주일 오전 10:30
영어회중예배-주일 오후 1:00

남가주새소망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500 Montebello Blvd., Rosemead, CA 91770
T. (626) 872-2405 교회, (503) 332-1941
www.newhopechurchla.com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고송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45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EM 1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45
수요일출성경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 (토) 오전 6:00

박신철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45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 10:00-11:00

이훈준 담임목사

창대교회
하나님께 영광!

173 E. 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T. (909) 388-2940

주일예배 오전 9시 (지성전) 금요일에 오후 7:30
오전 11시 (본성전) 매일 OT 월-금 오전 6:00
토요일 새벽예배 오전 6:00

본성전: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최승욱 담임목사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T. (760) 636-2675 / pspkmc.com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이승준 담임목사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6 E. Rorim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 www.hanaro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수요예배 오후 7:30
EM성경공부 오후 7:00 (금)
금요성경공부 오후 7:00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ia@hnsia.org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사우스 베이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영어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이창민 담임목사

L.A. 연합감리교회
100년역사의 미국 본토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

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T. (310) 645-3698 / F. (310) 645-306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00

1부예배(EM) 오전 11:00
2부예배(EM) 오전 11:15
중고등부예배(EM)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9-11시

정상용 담임목사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73-5106 / F. (310) 973-7429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후 1:30
한어찬양부 오후 2:15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6:00

김준식 담임목사

남가주살롬교회
Shalom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 (310) 787-1004 shalom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EM 1부 9:30 / 2부 11:00
중고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말씀까지 내 증인이 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51-3153 / doulos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청년부예배 EM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강신진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 257-817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50
수요예배(청년부) 오후 1:30
금요성령대행회 금 오후 7:20
EM예배 오전 11:0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나다, 글렌데일, 벨리, 벤추라, 버뱅크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20
주일성경공부/새교우반 새벽예배 오전 7:00 (토) 오후 1:00

류준영 담임목사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church.com

주일 1부 오전 8:00
2부 오전 10:30
EM예배 오후 12:30
유년부 오전 10:30

중고등부 오전 10:30
한어찬양 오후 12: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여호와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어라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 882-9191 / F. (818) 882-9777 www.churchmannam.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EM 오후 1: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금)
Awana 오후 8:00 (금)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 (금)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방수민 담임목사

베다니한인교회
문턱없는 교회 변화하는 교회 천지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 (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주일 1부 오전 8:00
2부 오전 9:30
3부 오전 11:30
젊은이예배 오후 2:00

EM예배 오후 1:30
금요영성집회 오후 7:45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새벽예배 오후 2:00

윤대혁 담임목사

사랑의빛선교회
주의 은혜가 흐르는 교회, 사랑의빛선교회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 744-9191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
2부 오전 1:30
EM/YOUTH 예배 오후 1:30

유초등부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새벽예배 오후 7:45

박정환 담임목사

예수인교회
Christian Missional Church

10452 Louise Ave., Granada Hills, CA 91344
T. (434) 229-6597 / cmc-12.com / yesuin2@gmail.com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일에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6:00 (토)

곽익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성경집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김민식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West Hills Presbyterian Church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1부예배 - 오전 8:00 / 9:45
2부예배 - 저녁 7:45
3부예배 - 월-금, 토 8:00

주일(영성예배) 9:30am, 11:30am
주요영성집회 - 저녁 7:45
수요(영성)예배: 7:15pm
새벽예배: 월-금, 토 5:30am
19514 Rinalto St., Northridge, CA 91326 1515 S. Santa Fe Ave., LA, CA 90021
T. (818) 393-5887

최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동성커플 입양 부정적 언급에 면직”

영 기독교인 리처드 판사 ... 동성 커플 입양 부정적 이유로 면직당해



리처드 페이지 판사 ©영성 캡처

영국의 기독교인 판사가 동성 커플의 입양에 대해 부정적으로 언급했다는 이유로 면직당했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최근 보도했다.

리처드 페이지(Richard Page JP-69) 판사는 최근 BBC와의 인터뷰에서 “판사로서 나의 책임은 ‘아이들에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바를 행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아이를 입양한 부모가 ‘남성과 여성’일 때가 (아이들에게) 더욱 나을 것이라고 느꼈다”고 설명했다.

페이지 판사는 지난 2014년 “동성 커플이 입양을 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최선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가 별도의 훈련 과정을 밟아야 했다. 이후 그는 복직했으나, 당시 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번 인터뷰를 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영국 사법부는 방송 내용을 문제 삼아 그를 다시 면직 처리했다.

영국 사법부법정조사위원회(Judicial Conduct Investigations Office) 대변인은 “대법관과 수석재판관은 ‘페이지 판사가 TV에서 말한 내용이, 합리적인 사람들에게 동성애자들에게 대해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게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들은 이 사안이 매우 심각하며 판사의 평판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그 이유를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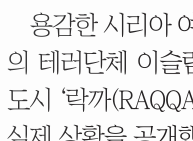
대변인은 “2014년 대법관과 수석재판관은 가정법원에서 열린 청문회 도중 ‘증거가 아닌 종교적 신념이 페이지 판사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 그를 문책했었다”고 덧붙였다.

2002년 통과된 입양및아동법(Adoption and Children Act)에 따르면, 공개적으로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라고 밝힌 이들은 영국에서 합법적인 입양이 가능하다.

이후 기독교인 판사들이 동성애자 커플의 입양을 반대할 때마다 소송을 당하고 있다.

“IS 지배 도시 ‘락카’ 촬영 동영상 공개”

용감한 시리아 여성들에 의해 ... 락카 도시의 실제상황 공개돼



용감한 시리아 여성들이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 이슬람국가(IS)가 지배 중인 도시 ‘락카(RAQQA)’를 촬영해 그 도시의 실제 상황을 공개했다.

최근 CNN은 시리아 여성 2명이 발각 시 처형될 위험을 무릅쓰고 ‘IS’의 수도 락카를 촬영한 영상을 보도했다.

CNN은 이 동영상을 통해 “가게들이 문을 열고 있지만 도시는 공포로 가득하다”고 전했다. “니갑”으로 온몸과 얼굴을 가린 이 여성들이 찍은 영상에는 무장한 남성 몇몇이 활보하는 황량한 락카의 광경이 담겨 있다.

CNN 보도에 따르면, “여성은 얼굴을 내놓고 다닐 수 없으며 만일 다닐 경우 처벌을 받는다”면서 “심지어 모든 염색약 상품 광고 모델 여성의 얼굴 역시 검음색으로 칠해져 있다”고 한다.

이러 “2014년 여름, IS가 락카를 장악하고 칼리프 국가를 선언한 후 도시는 근본적으로 변했으며 그 이후 가장 큰 고통 받는 것은 여성”이라고 전했다.

여성은 남성 보호자 없이 혼자 밖에 나갈 수 없으며 학교를 갈 수도 없고 일을 할 수도 없다고 한다. 또한 간통한 자, 동성애자로 의심되는 사람은 처형당한다.

보도에 따르면 “택시 안에는 IS의 지도자 아부 바크르 알 바그다디를 칭송하는 성가가 울려 퍼지고 있었으며, 택시 기사가 만일 혼자인 여성을 태우면 택시 기사뿐 아니라 그 여성 또한 태형(체찍질) 30대를 맞는 처벌을 받는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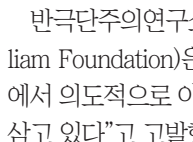
‘움 무하마드’란 가명을 사용한 여성은 인터뷰를 통해 “자유는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다. 모든 여성은 얼굴을 드러내고 싶어 한다. 우리는 현재 선택권을 잃었다. 우리는 여성성을 박탈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움 무하마드 여성은 그들이 목격했던 잔인한 처형 장면들에 대해서도 이야기 했다.

움 무하마드는 “인간은 호기심의 동물이고, 궁금해서 가보았다. 젊은 군인이었는데, 사람들을 줄을 지어 놓고 그들에게 4~5차례 총을 쏘았다”고 말했다.

“IS, 지하드 위해 10대들 집중세뇌”

탈출 아이들을 위한 ... 프로그램 및 후원 절실



반극단주의연구소인 퀴리엄재단(Quilliam Foundation)은 “IS가 이라크 시리아에서 의도적으로 아이들을 세뇌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고발했다.

반극단주의연구소인 퀴리엄재단(Quilliam Foundation)은 “IS가 이라크 시리아에서 의도적으로 아이들을 세뇌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고발했다.

최근 영국 크리스천투데이는 이날 퀴리엄재단이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해 “소위 말하는 칼리프 제국에는 임신부들이 약 31,000명 있고, 영국에서 온 어린이들 50여 명이 지하드(성전)을 위해 훈련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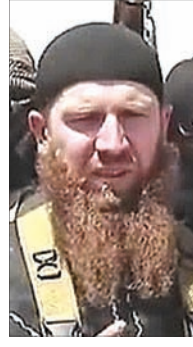
지난 6개월간 IS가 공개한 선전 영상에는 소년들이 등장했다. IS는 영상 속 소년을 ‘처형자’로 묘사하며, 실제로 한 소년은 공개 처형을 실시하기도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곳의 아이들은 학대받고, IS 가입을 강요당하며, 공포심에 따른 심리적 압박을 심하게 느끼고 있다고 한다. 퀴리엄재단은 “아이들은 칼리프 제국 건설의 현재적 필요를 채울뿐 아니라, 성장해서는 그 유지와 확장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보고서는 “현 IS 대원 세대들은 소년들을 잠재적으로 자신들보다 더욱 치명적인 무기로 보고, 태어날 때부터 혹은 아주 어릴 때부터 극단주의적인 가치로 세뇌시켜 키운다”면서 “아이들이 경험한, 폭력에 대한 지속적인 노출과 탈감각화는, 육체적·정신적으로 장·단기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보고서는 또 이 지역을 떠났거나 탈출한 아이들에 대해, 전체적인 재평가 과정을 통해 필요를 채워 주고 적절한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아이들이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훈련화 프로그램과 후원 조직들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IS최고사령관 오마르 알시샤니 死亡”



오마르 알시샤니 이슬람국가(IS) 최고사령관

인정했으며, SOHR도 이를 확인했다.

미군은 지난 4일 시리아 북서부 알사디에서 알시샤니를 목표로 한 공습을 진행했고, 당시 미국 국방부는 알시샤니가 사망했을 수도 있다고 봤다. 그러나 알시샤니는 공습 직후 시리아 락카의 한 병원에서 옮겨져 유럽 출신 IS대원으로부터 치료를 받았고, SOHR는 그가 중상이지만 여전히 살아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한편 조지아 출신 아버지와 체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알시샤니는 본명이 타르칸 바타리사빌리, 2013년 5월 시리아에서 IS에 가담했다. 2014년 이후 IS 수장인 아부 바크르 알바그다디의 측근이 됐고, 이후 북부 최고사령관으로 주요 전투를 지휘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슬람국가(IS) 최고사령관 오마르 알시샤니가 사망했다.

영국에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 감시 단체 시리아인 인권관측소(SOHR)의 라미 압델 라흐만 소장은 “알시샤니는 자가 호흡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인공호흡기에 의존 중이다”라며 “임상적으로는 이미 사망 판정을 받은 상태”라 전했다 바 있다. 그러나 15일 이라크 정보당국은 그가 사망했다고

“내전 중인 남수단, 인권 위기 심각”

UN인권위원회 발표... 어린이들과 장애인들도 끔찍한 방식으로 처형

최근 UN 인권위원회가 내전 중인 남수단의 인권 위기를 지적한 보고서를 발표한 가운데, 지역 기독교계 관계자가 그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내전을 겪고 있는 남수단에서 광범위한 성폭력이 자행되고 있으며, 반대파 시민들뿐 아니라 어린이들과 장애인들이 화형·교수형 혹은 신체 절단 등을 당하고 있다”고 고발하고 있다.

익명의 현지 교계 인사는 피데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UN 보고서는 분명히 신뢰할 만하다. 우리는 심사위원회(inquiry committee) 회원들이 1월 말까지 현지 목격자들과 만나 인터뷰하며 철저하게 일한 것을 보았다. 상대방에게 굴욕감을 주기 위한 체계적 성폭력이 발생한다는 것은 끔찍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남수단 내전은 지난 2013년 12월 딩카족의 살바 키르 대통령과 누에르족의 리에크 마차르 전 부통령 간 충돌로 발생했다. 계속된 분쟁으로 1만 명 이상이 숨졌고, 1백만 명 이상의 난민들이 심각한 식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UN은 2015년 발생한 폭력의 대부분은 정부군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N 인권고등판무관실(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은 특히 “성폭력이 1,300건 넘게 집계됐다”며 “매우 충격적인 수치”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시민사회 및 인권 활동가, 인도주의적 배우, 기자, UN 회원들 모두 정

부군의 위협·체포의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심지어 일부는 살해를 당하기도 하고 전했다.

폭력적인 분쟁은 강제로 인육을 먹게 하거나 피를 마시게 하는 등의 충격적인 상황까지 만들어내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작년 10월 아프리카연합이 밝혀냈다.

주바, 보르, 벤틀우, 말라칼 등지에서 전쟁 범죄를 목격한 이들은 “가해자가 방금 살해당한 이들의 몸에서 나온 피를 다른 부족원들에게 강제로 마시게 했다. 불에 탄 사람의 가죽을 먹게 하는 일도 있었다”고 말했다.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 등 미국의 기독교계 지도자들도 남수단 분쟁의 끔찍함에 대해 언급했었다. 자선단체인 사마리아인의지갑(Samaritan's Purse)을 운영 중인 그래함 목사는 작년 7월 “이 사람들은 신념을 떠나서 고통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정부에 폭력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누바와 블루나일에서 계속되는 분쟁이 북동아프리카 모든 지역을 불안하게 하고, 남수단을 파괴하고 있다. 전체 지역에서 유혈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UN의 남수단 인권평가사절단의 데이비드 마셜 코디네이터는 “내전에서 범죄를 저지른 군 지도자들을 교체된 정권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진 기자

“나의 목표는 유럽의 이슬람화”

시리아 난민... 유럽을 이슬람화하기 위해 유럽으로 왔다

아랍 텔레비전 채널에서 인터뷰한 시리아 난민이 시인하기를 그는 전쟁이나 ISIS의 박해를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인들을 이슬람화 하기 위하여 입국했다고 했다. 그는 이슬람 낙원에 들어가기 위해 그의 나라와 부모까지 팔아서라도 유럽인들을 무슬렘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또 말하기를 “알라신의 이름으로 맹세하니 내가 유럽에 있는 목적은 단 한 가지 이슬람에 호기심이 있는 유럽인들에게 이슬람을 알리리라”고 했다.

이민으로 지하드(jihad)하여 이슬람을 확산하는 것은 이슬람 코란(4:100)에 있

다. 이슬람 지도자들은 무슬렘이 유럽으로 대량 이주하므로 기독교를 없애고 이슬람화시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이슬람 지도자 Sheikh Muhammad Ayed는 예루살렘에 있는 회교당에서 무슬렘들에게 유럽으로 이주하여 유럽인들과 번식하고 그들의 국가를 정복하라고 했다.

한편 베를린 지하철 철도에서는 7명의 ISIS 관련된 남자들이 타고 있는 승객들을 모집하는 전쟁 노래를 부르고 ISIS 선전지를 나눠주다가 들켜서 경찰이 조사중이라고 한다.

[자료출처: 갯앤북]

“전 IS 대원에 의한 IS 핵심 서류 유출”

IS 대원 2만 2천명 명단 유출... IS테러 방지에 큰 도움 기대

영국 방송 스카이뉴스가 이슬람 수니파 조직 IS(이슬람국가) 대원들 최소 51개국 출신 2만 2천명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가족 연락처 등 상세한 신상정보를 담은 서류 수천건을 확보했다고 최근 보도했다.

이 서류가 IS 대원들의 신상정보를 담은 서류인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세계 각국이 IS 테러에 대응하는데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IS로서는 가장 중요한 기밀문서 중 하나가 유출됨으로 인해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명단에 나온 일부 전화번호는 지금도 통화가 가능한 상태여서 이 서류의 정보가 사실이 가능성이 적지 않다. 대부분 가족 연락처이지만, 본인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전화번호도 상당수다.

또 명단에 있는 이름은 IS에 가입하기 이전의 이름이거나 IS에 가입하면서 사용하기 시작한 새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는 이름이라는 점도 이 자료의 신빙성을 높여주고 있다.

이 서류는 IS 대원들이 IS에 가입할 때 작성한 신청서로, 이 매체가 전한 IS 가입 신청서는 모두 23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실제 이름과 전무원으로서 사용할 이름, 어머니의 결혼 전 성씨, 혈액형, 생년월일과 국적, 혼인상태, 거주지, 연락처, 교육 수준에 더해 특기, 맡게 될 보직, 충성도, 추천자, 전투 경험, 앞서 경유한 국가 등도 포함됐다.

또한 사망 날짜와 장소를 기재하는 칸까지도 있다. 특히 자살 공격 수행을 희망하는 이들은 ‘순교자’(Martyr)로 분류돼 있다. 목숨을 걸고 IS에 가입하는 셈이다.

서류에 포함된 조직원 상당수는 중동과 북아프리카 출신이며, 미국과 캐나다, 영국, 북유럽 국가 국적자도 있다.

스카이뉴스는 이들 상당수가 예멘, 수단, 튀니지, 리비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등 지하디스트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위험지역’을 여행했으나, 감시받지 않는 상태로 시리아로 들어갔다가 자국으로 되돌아갔다고 지적했다.

이 서류에는 외부에 이미 잘 알려진 대원들의 이름이 포함돼 있다.

이 매체가 소개한 압델 배리(Abdel Bary)라는 26세 IS 대원은 런던 출신 영국 국적자로, 리비아, 이집트, 터키를 거쳐 지난 2013년 IS에 합류했다.

이 서류 입수로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유럽, 중동, 그리고 북아프리카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던 IS 대원들이 대거 확인돼 IS 테러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스카이뉴스는 그들의 행방은 IS를 격퇴하고 추가적인 테러 공격을 방지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이 자료는 전직 조직원인 아부 하메드(Abu Hamed)라는 남성이 IS의 내부 감찰기관 수장으로부터 훔쳐낸 것으로, USB메모리에 저장된 파일 형태로 넘겨졌다고 스카이뉴스는 전했다.

자유시리아군(FSA) 출신이었다가 IS에 합류했던 그는 IS에 환멸을 느껴 빠져나왔다고 설명했다.

이 남성은 또한 현재 IS가 이라크 바트당 출신 간부들에 장악됐으며, 시리아 락카 분부를 포기하고 시리아 중부 사막 지대와 이라크로 이동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한편 시리아 뉴스사이트 자만 알 와슬도 앞서 40개국 출신 IS 조직원 1천736명의 가입 신청서를 공개했다고 영국 인디펜던트가 전했다.

아랍어로 작성된 이 서류에는 IS가 사용하는 로고가 있는 인장이 찍혀 있다.

노승환 기자

O.C./얼바인 지역 김철민 장로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CMF선교회 가정들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562) 483-0191 / (714) 493-0191		김일영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주일 9:00AM 새벽예배 월-금 5:30AM 주일예배 2부 주일 11:00AM 토 6:30AM 주일학교 주일 11:00AM NEX(한글) 토 9:30AM-10:00PM 대학남부College 주일 2:00PM NEX Kids club 주일 12:40AM-1:40PM 제자훈련/사역훈련 화-목 7:30PM NEXT 사랑의교회 NEXT Sa-Rang Church 11 Musick Irvine, CA 92618 Tel (949)829-0010(office) www.nextsarang.com	
앤드류 김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10:00am 수요일기도회 9:00pm (2부) 1:30pm 금요일전날아예배 8:00pm 새벽예배 (월-토) 5:00am 유.초등부 예배 10:30am 화요일기도회 7:00pm 토요일예배 7:00pm UBM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교회 1531 S.Sinclair St., Anaheim, CA 92806 Tel: 714-634-8360, Cell:714-600-7700 www.ubmchurch.com		김영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장애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아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어대학/한어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오병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예배 오후 2:30 2부예배 오후 12:30 유.초등부 예배 오후 12:30 토.일예배 오전 6:00 생가지 예배 :매월 4째주 주일 오후 5:30분 대학원예배 오후 2:30 남가주 벤엘 교회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는 교회 5600 Crescent Ave., Buena Park CA 90620 T.(714) 801-1625 kpcadavid@yahoo.com		민경업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나침반 한국학교 주일 오전 9:15 영 유아부 오전 11:00 EM.대학부 오후 1:30 유.초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6:30	
박재만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 오후 6:00 (금)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예배 화-금 5:30 (월-금)		허귀암 담임목사 1부 주일예배 오전 8:00 토.일예배 오전 6:00 분당 2부 주일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공부 저녁 8:00 분당 3부 주일예배 오후 1:30	
남가주 순복음교회 죽어가는 세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는 교회 4552 Lincoln Ave.#207, Cypress, CA 90630 T.(714) 952-0191 / www.socalfcg.com		하귀암 담임목사 주일예배(AM) 주일 11:00am 금요일예배 7:30pm 영아예배(EM) 주일 9: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저부,유초등부,중고등부) 토 6:00am	
늘푸른선교회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9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김일권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30 EM.주일 오전 11:30 금.일예배 오후 8시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고현종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새벽 5:30 3부 오후 12:20 토 새벽 6:20 4부 오후 2:00(젊은이예배)		이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45 금요사바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오전 6:00 (토) 주일예배 오전 9:30	
디사이플교회 17502 Daimler St., Irvine, CA 92614 T.(949)502-4923 / www.disciplecc.org		이동준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P-lander(Korean)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Children(1-9) 오전 11:00 금요일 기도모임 오후 8:00 Youth(7-12) 오전 11:00 토요일금요학교, 예프다스콜 College 오후 1:00	
김한오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15 4부 청년예배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3부예배 오전 11:00 토.일 새벽 예배 6:00		이름다운 교회 17702 Cowan, Irvine, CA 92614 T. (949)250-1111 / www.beautifulch.com	
권혁민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 오전 9:15 중등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고등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한어부 오전 11:30 KMC대학청년부 오후 2:00		홍성준 담임목사 주일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00 중.고등부 오전 11:00 대학청년부 오후 1:30	
얼바인 온누리교회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는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우대권 담임목사 주일 인터넷 생방송기 오전 6:30 주일 예배: 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 7:30 토.일 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예배: 오후 7:30	
박경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아) 2부예배 오전 9:30 새벽 예배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30 고등부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1:30(청년 한어) 청년부 수요일예배 오후 7:00 FAME예배 오전 11:30(청년 영아)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213)291-5900 / (714)833-2568 daekwon.org	
김민재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9:00 & 11:50 유.초등부 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화-토 5:30, 토 6: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엄영민 담임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8:15 유.초등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영아중고등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한어중고등부예배 오전 10:30 영아주일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토.주일 오전 6:00	
예진교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친구' 공동체 4221 Rose Dr., Yorba Linda, CA 92886(Worship Center) T.(714)788-3677 / www.yechinchurch.com 18639 Yorba Linda Bl., Yorba Linda, CA 92886 (교회 사무실)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열복한 교회, 삼림교회, 세계선교회, 미우리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891-2029, 898-1068 F. 714-373-3097	
남성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청년부예배 오후 2:00 3부신앙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한기홍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0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3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일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주님의빛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oc.com		최혁 담임목사 플러튼 채플 Fullerton Chapel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목요일성경집회: 7:45pm 새벽예배 월-금 5:30, 토 6:00	
주후덕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수.일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히스패닉 예배 오후 6:00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117 N. Pomona Ave, Fullerton, CA 92832 T. (657)217-5558	
임경남 담임목사 주일 생명의 예배: 오전 9:00am 금요일기도회: 금요일 오후 8:00pm 주일 한국어 예배: 오전 11:00am 새벽기도: 월-금요일 오전 5:30am 주일 영어 예배: 오전 11:00am 토요일 오전 6:00am 주일 유초등 예배: 오전 11:00am		조원재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토기장이교회 1808 W.Lincoln Ave., Anaheim, CA 92801 T.(714)234-5338 / www.pottersccc.com E-mail: info@Pottersccc.com		하나님의 은혜교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되자" 14706 Pioneer Blvd., Norwalk, CA 90650 T. (213) 247-7440 / godsggracechurch.org	

Need color ?

Precise Enhancement
Multi-function Printer

최첨단 고해상도 칼라 디지털 복합기
칼라복사 / 칼라프린트 / 칼라스캔
팩스/네트워크/Mobile Productivity
최고의 인쇄 품질
획기적인 비용절감



Green M. Wild IMAGE SYSTEMS TEL : 213 705 7778
www.GreenMWild.com . GreenMWild@Gmail.com
bizhub C554e/C454e/C364e/C284e/C224e

- C554e Colour B&W 55/55 ppm
- C454e Colour B&W 45/45 ppm
- C364e Colour B&W 36/36 ppm
- C284e Colour B&W 28/28 ppm
- C224e Colour B&W 22/22 ppm
- Dual Scan ADF 160opm Duplex
- Dual Scan ADF 80opm Simplex
- Emperor Drive!
- USB Print
- Colour Internet Fax
- Mobile Support



Simitri with Bizness *Optional : Fax & Finisher



조지아크리스찬대학교 아프리카 케냐 키타레 소재 신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었다.

조지아크리스찬대... 케냐 신학교와 자매결연

선교 교두보 케냐 신학교 통해 교육선교 앞장 서다



양 대학이 자매결연서에 서명하고 있다.

조지아크리스찬대학교(총장 김창환)가 교육선교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10년 전부터 설립자인 김창환 목사의 강의 선교를 시작으로 학교 교수진 및 여러 선교기관과 연계한 선교지에서 현지 목회자 및 지도자 훈련을 집중적으로 해오고 있으며, 지난달 15일 케냐 키타레 소재 신학교와 자매결연(MOU)을 맺고 활발한 교류와 협약을 약속했다.

케냐는 조지아크리스찬대학교에서 '교육선교의 교두보'로 삼은 곳으로 나이지리아, 사우스아프리카, 우간다 등과 함께 기독교 국가를 자처하지만 성경을 믿는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20%도 되지 않는다. 그나마도 원시종교, 토속문화와 혼합돼 매우 기복적이고 복음보다 전통 문화를 우선시하는 풍토가 깊이 뿌리내려 있으며, 성경에 대한 무지와 비성경적인 윤리의식은 각종 범죄와

성적 타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일부 목사들도 그에 동조한다는 점이다.

"학교의 발전 5개년 계획(2013~2018년)을 준비하면서 본 대학을 통해 일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교(Mission Dei)'가 '교육선교'라는 새로운 사명과 목표들로 구체화됐다. 아시아, 남미, 유럽 등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곳마다 다니며 성경 및 신학교육을 통해 현지 사역자들과 지도자들을 훈련하고 사역해 나가고 있다. 전략적으로 교육선교의 연결고리로서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우크라이나, 니카라과, 케냐 등에 있는 신학교들과 자매대학 협정을 맺었고 한국과 다양한 소통을 위해 한동대, 서울장신대 등 5개 대학교와 자매대학 협정을 맺고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다"고 김창환 총장은 밝혔다.

이어 "케냐 기독교인들은 복음을 들어 '지식'은 있지만 복음의 '삶'이 무엇인지 모른 채 세속적 가치관에 젖어 살고 있다. 생명이 아니라 종교로 전락해 버린 기독교는 구호 단체 중 하나로 갖는 의미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본교는 신학교육에 제약이 없는, 오히려 개발도상국으로서 아프리카의 희망이 될 케냐에서 바른 신학교육을 통해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현지 목회자들을 양성하고자 하는 비전을 품게 됐다. 그 일환으로 케냐 키타레에 있는 아프리카신학대학원(Africa Theological Seminary)과 자매결연을 체결했으며, 부총장인 송희숙 교수가 1년 전부터 이를 추진해 왔다. 또한 케냐대학교교육부(CUE)로부터 본교가 정식으로 승인 받는 은혜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번 아니라 올 6월부터 시작되는 철학박사 과정이 동남아시아 신흥개발국가면서 이슬람교를 국교로 삼은 말레이시아에서 시작된다는 점에 진취적이며 도전적인 선교 의욕이 엿보인다.

철학박사 과정은 조지아크리스찬대학 본교 목회자 연장교육의 일환으로 앞으로 기독교 교육이 금지된 선교지에서 목회자 연장교육과 선교사 재교육, 현지인 지도자 양성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선교 토착화를 이끌어갈 현지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교육선교는 미래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앤더슨 김 기자



조지아크리스찬대학교 아프리카 케냐 키타레 소재 신학교 전경.

●중보기도

한반도 위해 기도해야

2016년 북한 체제와 남북관계 전망 (2)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핵실험은 남북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 작년 2015년도 8.25 합의 이전까지는 남북관계가 긴장 일변도였고, 그 이후 대화의 움직임이 있었으나 지지부진했던 것을 생각한다면, 핵실험까지 덮쳐진 지금 남북관계는 긍정적인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핵실험에 따라 남한은 즉각적으로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였다. 이번에는 북한도 전단지 살포 등으로 맞대응하는 등 양측의 심리전이 이어졌다. 남한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주변국과의 공조 체제 강화를 통해 북한 정권을 압박하고 있다.

북한 핵실험 자체는 분명 한반도 평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안타까운 일이다. 그렇지만 이번 핵실험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핵실험을 통해서 북한에 대한 주변국들의 입장에 변화가 생겼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들은 오히려 북한 핵개발 저지를 위해 여러 국가가 긴밀하게 협력하는 계기가 되어 북한 문제 해결에 탄력을 받게 했다.

◆북한 선교와 한국교회

한반도의 평화와 북한 문제를 위해 기도해 왔던 성도에게 북한의 추가적인 핵실험은 가슴 아픈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군사적 위기 상황 속에서도 8.25합의가 극적으로 타결된 이후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관계 개선의 조짐이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더욱 그러하다. 특별히 8.25 합의를 계기로 대북 인도적 지원 등의 사역이 다시금 활기를 띠 것으로 기대했던 많은 기독교 활동가와 NGO에게, 이번 핵실험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 믿는 이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던 소식은, 임현수 목사에 대한 무기교화형 선고와 김동철 목사의 억류 사실 공개였다. 임현수 목사는 잘 알려진 대로 20여 년간 열정적으로 대북 지원을 해온 명망 있는 활동가였다. 하지만 억류 사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무기형이 언도됨으로써 많은 이에게 충격을 안겨 주었다. 게다가 최근 CNN 인터뷰를 통해 공개된, 스파이 혐의로 억류된 김동철 씨도 침례교 목사로 확인됨에 따라, 많은 믿는 이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남한 국적 한국인 선교사들에 이어 해외 국적자들 억류가 잇따르면서, 얼어붙은 남북관계로 인해 대북 사역이 어려워진 국내 기독교단체들뿐만 아니라,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해 왔던 한국계 해외 활동가들과 단체들의 활동도 위축될 수

밖에 없게 됐다. 게다가 임현수 목사는 종교국가 건립 등을 죄목으로 내 걸리는 등 종교적인 문제가 직접적으로 거론되었기 때문에, 기독교 배경의 사역자들의 활동은 더욱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북-중 국경도 어려운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핵실험을 통해 김정은 정권은 대외적 긴장과 위협을 선전하여, 외부의 적에 대해 단결해야 한다는 논리를 앞세워 내부 결속과 단속 및 감시 활동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또한 북중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경의 보안이 강화되고 기존의 감청 및 도청 활동과 국경 감시 활동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 쪽에서도 국경 경비와 중국 내 거주하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전과 같이 많은 북중관계로 인해 중국 공안 당국이 북한 정보 당국에 대해 이전처럼 협조하지 않을 수 있어, 실제 중국에 머물고 있는 북한 여성 및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 판단하기는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우리의 기도

2016년의 시작부터 북한과 남북관계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전망을 하기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 그렇지만 믿는 이들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무엇보다 다시금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 땅의 평화는 정치가들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 한반도에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선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찌 보면 가장 위험한 일은 바로 무관심일 수 있다. 핵실험이 발발했지만 잦은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이미 익숙한 우리들은 평온하다 못해 무덤덤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 또는 기도해도 개선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 지칠 수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에서도 분명 역사하고 계시며 이러한 위기 상황이 주님 안에서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믿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 그러할 때 2016년 한 해도 주님 안에서 통일과 북한 선교에 의미 있었던 해로 기억될 것이다. <끝>

[자료출처: 오픈도어선교회 북한선교연구소]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원)

봄학기 학생모집

봄학기

2016년 3월 21일(월)~5월 28일(토) 수업
(봄학기 등록마감 3월 21일까지)

본 기독교 복음선교 연합총회에서는 캘리포니아 주 정부와 주 교육국의 승인을 받아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원)를 진리와 경건이란 학훈을 가지고 설립하고 다음과 같이 2016년 봄학기 학생을 모집합니다.

	신학 대학교 신학과(BA) - 4년 / 126학점
	신학 대학원 1) M.Div. 교역학 석사 과정 - 3년 / 96학점 2) M.A. 석사과정 - 2년 / 48학점 3) Th.M. 신학 석사 과정 - 2년 / 48학점 4) D.Min. 목회학 박사과정 - 3년 / 48학점 5) Th.D. 신학박사 과정 - 3년 / 56학점
	일반 대학교 1) 선교사 과정 - 2년 / 56학점 2) 평신도 지도자과정 - 1년 / 36학점 3) 평신도 성경학교 - 6개월 / 12학점 4) 채플린 과정 - 소정 과목 5) ESL 과정 - 1년 6) 유치원 교사 및 원장 과정 - 1년
홈스쿨링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정과 교육의 문제의 대안으로 크리스찬 홈스쿨링 교육을 전문으로 지원합니다. 크리스찬 홈스쿨링은 크리스찬 부모들과 자녀들이 함께 영성과 인성과 지성이 통합적으로 균형 잡힌 성장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함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성경적인 교육 방식입니다.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의 홈스쿨링은 무너진 가정과 교육의 회복을 위해 앞의 본질을 앞세우고 제자도를 실현하기 소망하는 가정들의 결단과 헌신을 격려하며 견고하게 만드는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 입학 첫학기 등록 학생들에게는 80% 장학금을 드립니다.
* 기독교 복음 선교 연합총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교과 과정 중 50%는 인터넷으로 수업이 가능합니다.
* 본 학교는 분기별(쿼터제)로 학생을 모집합니다.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College & Seminary in America (CTCS)

1508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213)999-6884(대표전화), (213)272-6031, (213)235-6889

전자보청기
\$300 상세한 정보 보내드립니다.
JongKim6702@gmail.com
T: (213)270-5268 김중명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Family 자동차 \$중고차 최고가 매입\$
새차 맞춤 리스 중고차 매매 “기본 \$700 더 드립니다.”
213.453.5900 714.743.1000
933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familyauto.us

중고차 황제 김기형

한미사랑
한미사 Zo'e 조애
Tel: (213) 718-8275
이제마 사상 체질 맥 30년 전문 체질맥, 장부맥, 병맥, 설진

심혈관 질환, 간질환, 중풍, 소화기문제, 내분비문제, 부인병, 고혈압, 당뇨, 부종, 알러지, 신장병, 각종통증, 갱년기, 생리통, 생리불순 (아들 원하시는 분)

2120 W. 8th St, #208, LA, CA 90057(8th & Lake St.) (일수금 예약 필수)

주님미디어닷컴 **전도용품** 및 **배너** 할인행사
오픈 기념 CD Printing * Papersleeve=\$300
완성배너 스탠드포함 \$65 (할리우드급 제리안 전 품목 Free Shipping!!!)

미디어선교에 앞장서는 탐미미디어에서 귀 교회와 성도님들의 사역과 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성기 위해 기독교 전문 온라인 쇼핑몰인 주님미디어닷컴을 새롭게 오픈하였습니다. 보다 편리한 구매와 저렴한 가격, 세련된 디자인으로 귀 교회와 성도님들께서 참가하시는 사역과 사업을 성기도록 하였습니다.

junimedia@gmail.com
Call : 323.265.0244
CD, DVD 제작전문, 각종 인쇄, 현수막, 각종 서신(심내외, 장문), 제작, 연속물인쇄 전문
junimedia.com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76 오일사용
10% 할인

트랜스미션 타이밍벨트
브레이크 튜업정비

\$23.99 *tax 6cyl.
\$18.99 *tax 4cyl.
\$28.99 *tax 8cyl.
(Carbon Filter Extra)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 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대상: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미용인도 OK)
회비: 월 \$10
강사경력: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문의: 213.392.2323

BOOK BINDING DIGITAL PRINTING BANNER / BOARD FLYER / BROCHURES BUSINESS CARDS BOOKLETS
책자제본 디지털 인쇄전문
EXCELPRINTING 213.383.7733
2500 W. 8th St. #100, 101 Los Angeles, CA 90057

100% 천연성분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송문기박사는 아연이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항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미국 독점 출시 기념 파격 세일
1병 \$89 + tax 3병 \$249 + tax 6병 \$474 + tax
PRO-Z USA Inc. 213.434.1170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현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제 2의 심장 **“발” [카이로메아]**
CHIROMEA
발에 대한 무관심으로 깨어진 신체의 내부 장기 및 근 골격계를 이제는 카이로메아로...
인체공학작설계
척추에 미치는 중력을 3방향으로 분산 : 디스크, 관절염 등 척추질환 예방
지속적으로 용천혈을 자극함으로써 기력 증진
카이로메아를 착용하셔야 할 분
조금만 걸어도 힘이 없거나 발바닥, 뒤꿈치, 무릎 및 허리가 아프다.
발바닥 또는 특정 발가락에 티눈, 굳은살이 생기거나 신경이 압박을 받는다.
성장기 어린이의 기형적 걸음걸이의 균형과 성장 촉진이 필요하다.
사용방법
남여 구분없이 표준화 되었습니다
대(L)9 1/2 이상, 중(M)9-6 1/2, 소(S)6 1/2이하

가루간장
SOY SAUCE POWDER
SOY SAUCE POWDER는 유전인자를 변형하지 않은 콩으로만 만듭니다.
콩이 95% 들어 있어 영양분이 풍부
No 방부제, No 화학조미료 안심!

골든씰
Golden Seal
골든씰은 약초중의 약초로서 (KING OF KINGS)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약초들 중에서 가장 놀라운 약효를 지녔다. 항생제가 필요한 모든 경우에 사용하며 감기몸살, 폐렴, 신종플루, 독감예방, 위장질환, 간염, 간경화, 중이염, 방광염, 습진, 백선 등 각종 염증 피부질환에도 좋음. 특히 마약 중독성에 최고의 해독제로도 알려져 있다.

CHARCOAL
숯가루와 질병 격음
알레르기, 아토피성피부염, 습진에 숯가루 적용
차콜은 인체내의 독성 성분을 제거
가정 상비 식품 필수!

리프팅 라인·지방분해
최신장비도입
*리프팅 라인 4회 \$999
*부분지방 분해 5라인 8회 \$999
•치독한 비름, 두피염증, 가려움증, 탈모

치아미백 3대째 기업으로 이어온 영선한의원
잇몸 시큰거림 풍치예방 3달분 \$60

배 빠는 속변약!
먹으면서 체중을 줄이고,
몸 전체에 부종이 빠지는 약
한달 \$50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213)380-7800
서울메디칼 그룹 각종보험취급 (교통사고 전문 병원)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 월~금:10시~5시/ 토 10시~2시

win HYUNDAI CARSON **원현대 칼슨** HYUNDAI
2016 현대 소나타/엘란트라 리스스페셜
0% APR, No Payments for 90 Days!
Sonata 98\$/Month(3 Yrs.) Elantra 88\$/Month(3 Yrs.)
0% APR & No Payments For 90 Days
2015 Hyundai Sonata & 2015 Hyundai Elantra

Alex Shin Fleet Manager
2201 E. 223rd St., Carson, CA 90810
ashin@winhyundaicarson.com
Phon: 310.830.5100 (Ext 653)
Cell : 562.900.2399
Kakao ID: alexshin878

www.winhyundaicarson.com
한인타운에서 15분에서 20분거리
브로커 환영

주말에도 오픈합니다.
2201 East 223rd St. Carson 90810

유학생, 상사 주재원 도와드립니다.
Bad Credit, No Credit 연락주세요
미 서부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딜러

●심민수 칼럼

기독교의 하나님과 이슬람의 알라가 같다?

요즘 한국에서 '알라'가 뜨고 있다. (알라-기독교와 이슬람의 신은 같은가?)

몇 해 전, 미국에서 출간되어 아직까지도 논쟁이 계속되는 예일대 신학대학원의 미로슬라브 볼프의 책이 한국의 유명 기독교 출판사에서 최근 번역 출간된 데서 비롯된다.

또 최근 기독교 명문대학인 휘튼대학의 한 여자 교수가 기독교의 하나님과 이슬람교의 알라는 동일 존재라 주장하여 학교 당국으로부터 징계 당한 일도 있었다.

그런가 하면 아랍어 성경에는 하나님(God)이 알라로 번역되어 있다. 실로, '알라'라는 용어사용과 관련하여 교계가 떠들썩하다.

이런 차제에 본 필자는 볼프의 주장에서 여러 논리적 문제점을 발견하였기에 이를 밝혀 교계의 바른 판단을 위한 자료로 제시해 본다.

첫째, 언어기호론적 측면의 문제점이다. 모든 언어는 실재하는 것을 반영하거나 묘사(模寫)하는 것이란 이론은 이미 19세기 말, 스위스의 언어학자인 소쉬르에 의해 깨어졌다.

언어는 실재하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실재에 대한 그 언어 사용 집단의 개념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집단의 개념(의- signified)이 다르면 아무리 동일한 단어, 유사한 표현(기표-signifier)이라도 그것은 동일한 기호가 아니다. 언어는 그 어원적 유래가 어찌 되었든 현재 그 용어를 사용하는 공시 집단이 어떤 개념을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기호가 되고 그래서 아무리 보통명사로 시작했더라도 이미 고유의 의미를 담은 고유명사의 반열에 오르면 다른 기호가 된다.

실제로, 기독교 집단 속에서 형성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담고 있는 의미는 이슬람교 집단 속에서 형성된 알라의 호칭이 담고 있는 의미와는 너무도 다르다.

볼프는 성경과 꾸란의 내용을 대비시켜 동일한 속성과 유사한 개념을 소개하고 있지만, 그 이름이 담고 있는 의미는 그것만이 아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하고는 존재할 수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개념을 빼고는 성립될 수 없는 진리이다.

하나님의 존재는 그 존재가 행한 사역과 구분되지만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시며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실존하신 하나님이며 인간의 죄를 대신해 구속적 사역을 이루신 분으로 성경은 기록한다.

성경을 특별 계시로서 믿는 기독교 집단 안에서는 하나님 개념 속에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구속적 사역이 포함된다.

그러나 이슬람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적 개념 속에 결코 포함시키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의 의미가 알라 개념 속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기독교의 하나님과 이슬람교의 알라는 호환될 수 없는 다른 기호이다.

볼프는 오래 전부터 아랍어를 사용하는 콥트 교회가 '알라'라는 표현을 사용해 왔으며, 이 '알라'라는 호칭은 보통명사로서 신(神)에 해당하는 표현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콥트의 알라와 이슬람의 알라는 비록 기표는 같을지언정 기의가 다르므로 다른 기호이다.

콥트 교회가 신의 의미로 보통 명사 '알라'를 사용한다는 것은, 일본의 '가미'와 같은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일본에서는 기독교의 가미(神)와 다른 종교의 가미(神)를 수식어를 붙여 구별하고 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믿는 '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부름으로써 아직 고유명사가 없던 시기에 수식적 관형어를 사용해 다른 종교의 '신'과 구별하는 장면과 같다. 영어권에서 God는 god와 대소문자 구분만 빼면 같은 철자, 같은 발음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개념을 부여하는 다른 단어이다.

둘째, 존재론적 측면의 문제점이다. 볼프에 따르면, 기독교의 하나님과 이슬람교의 알라는 추종집단의 인식론에 차이가 있을 뿐 존재론적으로 동일한 존재라고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론을 거론하려면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영존하시는 분으로 3차



심민수 교수
미드웨스턴침례신학대학원

원적 공간과 시간의 개념으로 대상화 될 만한 제한적 존재가 아니라는 점이다.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가 3차원의 한 사물(예를 들어, 탁자 위의 사과)을 향해 다른 방향에서 두 사람이 손가락으로 지시할 때, 두 사람은 동일한 대상을 지시하고 있다는 방식으로 설명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다만,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3차원의 세상에 육신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느 정도 가능하다. 우리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제한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그리스도를 제외한 채,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은 시작부터 근본을 놓친 것이다.

볼프는 이번 저작에서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성경과 꾸란 속에 나타난 하나님과 알라의 속성 간의 공통점을 찾아 밝히는 데 주력한다. 이것이 그의 동일 존재론 주장의 근간을 이룬다. 물론 그리스도는 제외된다. 이런 논리는 '부분을 보고 전체를 추론하는 방식'으로 항상 무리가 따른다.

문제는, 볼프가 주장한 동일 존재론의 논리를 수용하게 되면, 고대 근동에서 보통명사 '엘'을 붙였던 우가릿 지역의 셈족의 '신'이나 이집트의 태양신 '라'가 하나님과 동일 존재라고 주장해도 같은 맥락에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이다. 고대 근동에서 '엘'은 신적 개념에 해당되는 표현이며 고대 이집트 기록에 보면 '라'도 태양신으로서 창조자, 자존자 등의 의미로 묘사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런 논리를 확대하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사용하여 온 천지신명(天地神明)은 기독교 하나님과 동일 존재며 성경을 이런 표현으로 모두 바꿔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논리가 성립하게 된다.

다소 공통된 의미가 있다고

해서 아무 용어나 무분별하게 가져다 혼용하면 원래의 본질적 개념이 변질되고 고유의 정체성이 상실될 수 있는 위험성이 상존한다. 이런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다른 이름으로 호칭하는 것이 매우 유효 적절하다.

우리나라에서 기독교가 처음 전파된 시기부터 '하나님'이란 새 칭호가 사용된 것은 기독교적 신(神) 개념을 새롭게 담아내어 전파하는 데 매우 획기적이고 유용한 결과를 가져왔다. 보통 명사로서의 신(神) 개념이 한 집단에서 고유의 의미(공시적 기의)를 추가하여 지속적으로 사용되다 보면 고유명사화(공시적 기호화)된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처음부터 새 이름으로 지칭하는 것이 매우 유의하고 적절하다. 구약에도 모세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해야 할지를 물을 때,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새롭게 구별된 이름을 일러주시는 장면이 나온다(출3:14).

정체성 상실의 위험성과 아울러 추가되는 문제점은 또 있다. 신천지,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등 많은 기독교 이단들의 하나님이나 성경의 하나님은 동일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동일한 존재를 믿음의 대상으로 신봉하는 것이고 따라서 같은 신앙의 대상 아래서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키는 사소한 차이를 문제시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로까지 나아가 여지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모두가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되어 '평화와 공존'의 대의명분 아래에서 하나의 지구촌 공동체 의식을 위해 모든 종교가 협조와 양보의 자세로 서로서로 용납해야 한다는 인본주의적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된다.

물론, 그 결과는 종교다원주의, 보편구원, 세계통합종교 등의 결론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셋째, 계시론적 측면의 문제점이다. 즉, 계시론의 맥락에서 성경과 꾸란의 유래에 관한 문제를 짚어 봐야 한다.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은 기원후 4세기에 정경화가 최종적으로 마무리 되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졌다. 기독교의

보수적인 믿음은 성경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허락하신 특별 계시라고 확신한다. 반면에, 꾸란은 7세기경 이슬람이 조직력을 갖추던 시기에, 성경과 여타 종교의 경전을 참고하여 당시의 이슬람 지도자들의 의도에 맞춰 23년 만에 편찬된 경전이다. 이브라함(아브라함)의 기사를 기록한 내용을 보면 이스마엘이 적자이고 이삭이 서자로 나온다. 제단에 바쳐진 것도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로 기록되어 있다. 이런 편집 대목이 꾸란에는 흔히 나타난다. 이것은 성경의 입장에서 보면 위경에 속한다. 만일 꾸란을 하나님의 계시로 인정한다면 기독교의 다른 위경들도 정당한 계시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볼프가 예일대의 진보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나마도 성경의 권위를 높이려는 입장에서 있다고는 하지만, 이번 저작에서만큼은 특별계시로서의 성경이 지닌 유일한 권위를 전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그는 성경과 꾸란을 동일 수준의 경전 차원에서 대비시킴으로써 그가 의도치 않았다고 하더라도 성경 권위의 유일성을 잠식하고 있다. 그가 전면에서 내세우고 있지는 않지만 실제로 그의 주요 관심사는 '공존의 정치신학적 논리'이다. 우려되는 것은, 교계에 잘 알려진 학자가 이처럼 혼란스런 혼합주의 시대에 '공존의 미명' 아래, 기독교의 본질을 흐려놓았다는 데 있다. 그리고 여기에 지명도 있는 지식인들과 언론 출판 관계자들이 함세함으로써 사태를 더욱 혼미한 상태로 치닫게 할 위험 인자를 유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이런 상황 전개가 그동안 무분별하게 혼용되어 왔던 용어의 개념 정립을 위한 논의의 장이 활발히 펼쳐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이자 성경의 중심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는 인본주의적인 논리와 상식으로써는 결코 이해될 수 없는 존재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절대역설의 존재'를 우리가 부여잡는 한, 우리 역시 세상에서 용납되기 어려운 편협한 존재로 치부됨을 기꺼이 감내해야 할 것이다.

Sales • Rental • Service • Free Estimate • Supplies

1¢ 최저 1장

복사기 판매 렌탈 서비스

FMB RENT PROGRAM

- SERVICE는 물론 TONER, DRUM ROLLER 등 모든 PAR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기적으로 SERVICE를 실시합니다.
- 4시간내 A/S를 신속 처리



최신식 디지털 COLOR COPY MACHINE 칼라카피어 렌트전문!



칼라 카피

FBM First Business Machines, Inc

전화문의 (800)582-3321 / (562)802-9044

Fax : (562)802-8094

www.fbmcopiers.com

13245 E. Rosecrans Ave., Santa Fe Springs CA 90670

기·독·일·보와 함께하는

복새동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신간 추천

죽을만큼 훈종하라

앤드류 머레이 | 브니엘 | 208쪽

순종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고 죽은 믿음이다. 하나님은 형식적 신앙보다 온전한 순종을 원하신다. 순종은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오롯이 드러내는 보증서이다. 어린이가 같은 단순한 순종은 믿음만큼 강력한 능력이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끊임없이 해야 할 질문은 '도대체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여야 한다.



그리스도는 살고 나는 죽는 이야기

박성욱 | 예영커뮤니케이션 | 200쪽

한국의 국민선교회 대표의 아내이자 사모인 저자가, 남편과 함께 40여 년 동안 선교를 해 오면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형형색색의 색깔로 풀어놓았다. 저자는 돌로스 호에 승선하여 각 나라마다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고,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에서 항만 사역을 했으며, 한국에서는 인천남동공단에서 남편과 함께 한국외국인선교회를 설립하여 지금까지 외국인 선교에 힘쓰고 있다.



아는 만큼 깊어지는 기도

이상화 | 카리스 | 192쪽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 이 기도 시간을 통해 저의 무엇을 변화시키려 하십니까?'라고 묻는 습관이 들었다는 저자는, 책을 통해 기도에 대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제안한다. 관념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실제 '변화의 자리로 나아가는' 성숙함을 향해 우리 생각과 기도의 내용을 바꾸도록 권면하는 것. 기도하기 전, 기도의 이유와 제목을 알려 준다.



킹제임스성경 유일주의의 망상

권동우 | CLC | 416쪽

킹제임스성경(KJV)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주장하는 '유일주의'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 킹제임스성경 탄생에 관한 역사적·신학적 고찰을 시도하고, 유일주의가 주장하는 사항들에 대해 킹제임스성경 서문과 난외주 분석, 그리고 실례를 들며 허구성을 논증한다. '킹제임스성경 유일주의'의 문제점을 본문의 탄생에 대한 역사적·사본학적 분석을 통해 신랄하게 파헤친다.



REVIEW

구입문의

LA : 조이기독교백화점 T. (213)380-8793
OC : 생명의 말씀사 T. (714)530-2211

“설교는 하나님의 음성을 회복해 그분의 말씀을 재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Word)을 하나님의 어조(Tone)로 전달하라!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과 성경이 설교의 내용(substance), 구조(structure), 역동성(spirit)을 주도하도록 하는 설교와는 차이가 있다.

이 책을 통해 베테랑 설교자 스티븐 스미스 교수는 장르의 특징이 살아 있는 본문이 이끄는 설교, 즉 '본문의 구조'가 '설교의 구조'가 되는 설교 방식을 가르쳐준다.

이렇게 설교하려면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는 데 사용하신 문학장르를 설교자가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스미스 교수는 왜 장르에 따른 설교를 해야 하는지 간략하게 피력한 후, 성경 장르를 구조적 특징에 따라 크게 내려티브, 시, 서신으로 분류한다. 이런 거시적 장르 속에, 각 개별적

장르의 독특한 특징(법, 예언, 서신서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그런 다음 본문이 이끄는 설교문을 어떻게 구성해 나갈지 실제적인 조언과 함께 샘플설교문을 예로 제공한다.

“본문이 이끄는 설교는 단순한 설교 방식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본문에 최대한 가까이 가려는 목적을 지닌 하나의 설교철학이다. ...

성경에 좀더 가까워지고 성경을 좀더 분명히 알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는 성경의 장르(외적 형식)를 연구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본문의 형태를 아는 것이 설교의 형태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본문이 이끄는 장르별 설교 스티븐 스미스 아가페북스 | 406쪽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되살리게 된다.” <서론 중에서> 다니엘 L. 에이킨(Daneil L. Akin),

사우스이스턴침례신대학원 총장은 추천의 글을 통해 “나는 오랫동안 설교 사역을 하면서 이 같은 책을 기다려 왔다. 내 사역에서 무엇인가 빠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스티븐 스미스 박사는 그 비어 있는 공간을 채워주었고, 이 책을 접할 모든 목회자들과 교회를 위해 값진 노력을 했다. 우리는 심지어 강해설교에서도 장르를 매우 오랫동안 소홀히 다루어왔다. 설교학 교수인 저자는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본문의 내용과 구조가 어떻게 설교의 내용과 구조를 형성하는지 분명하게 보여준다. 왜 우리가 이 사실을 그렇게 오랫동안 볼 수 없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이 책의 출간으로 우리

는 더 이상 변명할 수가 없다!”라며 설교 길라잡이로서의 이 책의 탁월성을 극찬했다.

또 고든웬슬린대학원 설교학 교수인 스콧 M. 김슨(Scott M. Gibson)은 “스티븐 스미스 박사는 여러 성경 장르를 설교하는 영역으로 설교자들을 조심스럽게 인도한다. 또 설교자들이 장르 자체의 형태를 존중하는 설교를 개발할 수 있도록 그 영역의 경관을 감상하게 한다”며 추천했다.

지은이 스티븐 스미스(Steven W. Smith)는 현재 텍사스 주 포트워스에 소재한 사우스웨스턴침례신대학원의 설교학 교수이자 학생처장으로 섬기고 있다.

이영민 기자

Church Property Solution 교회부동산 전문회사

Division of Max Capital Group, Inc.

교회 부동산에 관한 모든 것! 전문가에게 맡기십시오!

건물은 건물일 뿐입니다. 하지만 장소와 건물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사역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Church Property Solution은 부동산 활용을 극대화 함으로써 사역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게 지역 교회들을 돕는 교회부동산 전문회사입니다.

교회 부동산 매매 Church Property Sales

교회 부동산 리스 Church Property Lease

교회 미디어 디자인 Media Design & Consulting

부동산 매매와 리스 | 인더스트리/오피스 건물/비즈니스 팍을 교회로 변경 사용 | 교회 건물 렌트 | 건축/중축/보수 상담 | 교회 부동산 용자 각 시의 CUP 받는 것을 대행 | 예배실 디자인 | 교회 미디어 상담/디자인 | 이에 필요한 모든 벤더들과 협력

Mark Kim, CEO/Broker
BRE # 01338646, NMLS # 393349
PH (909)643-3994
Email: markk@churchpropertysolution.com

Stephanie Jung, COO
BRE # 01849106
PH (562)480-6912
Email: sjung@maxcapitalgroup.org

Max Capital Group, Inc
135 S State College Blvd Suite 200
Brea, CA 92821
PH (714)987-6120 | Fax (909)635-6116
www.churchpropertysolution.com
BRE # 01987951 NMLS # 1425276

“우리 안의 ‘유다’로 난 창”

소설로 만나는 가룟 유다

소설로 형상화하기 쉽지 않은 인물이 있다. 일부라도 성격과 얽힌 사건, 그 전개 과정과 결말 등에서 익히 알려진 인물이 거기에 해당한다. 짐작하는 바로 그 이유 때문인데, 예를 들면 결말이 드러나 있어 플롯에 생동감을 부여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같은 이유에서 입체감 넘치는 줄거리를 갖추기가 만만치 않다는 점 또한 고민스럽다. 같은 인물이 예로 든 사정을 모두 지녔거나 더 나아가 아주 평면적이라면, 어떤 이유로든 그런 인물을 형상화하려는 작가에게는 고문과 같은 고통이 느껴지기도 할 것이다. 그래서인지 위의 조건을 두루 갖춘 인물이 소설로 각색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 듯하다.

그와 같이 말이 되지 않는 작업에 뛰어드는 작가가 있다면, 돌 가운데 하나일 가능성이 높다. 물정을 모르거나 너무 영악하거나. 이렇듯 얼토당토 않은 좌판에 이름을 내건 작가가 있다. 이름마저 생경한 ‘토스카 리’가 그 주인공이다.

여기까지의 사정은 그래도 작가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수긍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가 주인공으로 다룬 인물이 누구인지 알면 태도 변화가 불가피하리라 기대해도 좋다. 이해를 돕기 위해 주인공을 유추할 만한 단서 몇 가지를 소개하면 이렇다.

스승은 그를 친구라고 불렀다. 그룹 내에 회계 전문가가 있었음에도, 그가 전체의 회계를 도맡았다. 정리하면 그는 스승의 총애를 받았으며, 구성원들 모두에게 신임이 두터웠다.

그가 돌연 스승을 팔았다. 스승은

그 때문에 유명을 달리했다. 그는 스승을 판 돈으로 거리낌 없이 땅을 흥정했고, 바라던 걸 얻었다. 얼마간 시간이 흐른 뒤 자살했다. 이쯤에서 얼핏 떠오르는 인물, 바로 ‘유다’, 맞다.

“어릴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헤롯이 죽지 않았더라면, 요단 강변에 있던 비쩍 마른 사람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더라면.”

유다는 비기독교인들에게도 익히 배신의 아이콘, 저주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다. 적어도 그런 그가 주인공의 자격을 갖추려면 주변 인물이라도 주변인으로 머물 수밖에 없는 배경이 대중에게 매력적인 요소로 어필하거나, 스승을 배반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과정에서 피치 못할 어떤 사정이 개입해서 독자들이 눈물샘을 자극받지 않을 수 없거나, 이것저것 아니라도 스승과 제자 간 밀약이 드러나 유다를 옹호할 일말의 구석이라도 있거나 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것과 거리가 멀다.

특히 마지막 예의 경우 목적인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십자가에 달려야 하지만 그럴 계기를 좀처럼 찾지 못한 예수와, 그런 스승을 안타깝게 바라보던 친구 유다가 밀담 끝에 ‘유다의 밀고에 이은 예수의 십자가 처형’이라는 시나리오를 만들었다는 황당한 이야기가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나오는 또 다른 현실은, 유다 편에 선 진술 같아 보여도 한 꺼풀 벗겨 보면 그만큼 유다를 옹호하는 입장이 빈약함을 드러낸다.

이런 마당에 유다가 전면에 등장하는 모양새고 보면, 누구라도 이 작품을 대하는 첫인상이 미묘하게 흔들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유다: 배신의 입맞춤
토스카 리
홍성사 | 456쪽

토스카 리는 작품의 중심을 해방의 날을 고대하며 고투하는 로마 복속의 이스라엘이라는 시대 상황에 두고, 그 안에서 폭압 정권에 맞서 싸우며 죽음의 행렬조차 마다하지 않은 인물들의 뜨거운 일상 한복판에 ‘유대인의 반란’을 가져다 놓았다.

일상의 복판은 매 순간 요동치며, 가파르게 떨어지고 맹렬히 흐르는 특성이 있다. 긴장이 벅빰미처럼 계속되는 이유는 그 때문이다.

특히 견잡을 수 없이 전개되는 고통스러운 사건과 일상이 결부되면 그 추이를 예측하기가 무척 어렵게 되는데, 그건 마른 땅 위로 자욱하게 퍼져가는 먼지가 바지춤에 허영게 내려앉은 줄 모르는 이치와 같다.

잠시 뒤 온몸을 에워싸는 먼지의 양상이나 시퍼렇게 살아 움직이는 인물들의 형상을 묘파한 뒤란으로 가없이 쏟아지는 거친 일상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 서른여덟 번째 부림절이 끝난 직후, 그 평화는 산산조각이 났다.”

「데몬: 악마의 회고록」, 「하와」 등의 전작을 통해 인물의 성격과 시대 상황을 공고히 직조하여 형태에 입체감을 부여하고 그 위에 현실이라는 옷을 입힘으로써, 등장인물들을 파편화된 개인에서 보편적 인간의 양상으로 끌어올린 바 있는 토스카 리는, 이 작품에서 인간 내부에 파리를 틀고 있는 죄성의 보편성에 보다 걸 굵게 천착해 들어간 인상이다.

유다의 죄를 돌이킬 수 없는 범죄행위로 단죄하는 데 있어서는 전통적 시각과 다를 바 없지만, 유다의 범죄에서 보편적 인간의 동일한 범죄 가능성을 예리하게 묘파한 점이 두드러진다.

스승이자 인류 전체의 구세주인 예수를 판 행위는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그렇다고 그 유다에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틈을 주면 얼마든지 같은 범죄에 노출될 수 있음을 경계하는 표식의 의미를 찾지 못한다면, 그 또한 무망한 일이다.

유다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이었다. 강하고 자랑스러운 그 이름이 허망하게 무너져 내릴 때, 이스라엘 역시 쓰러졌음을 암시한다. 같은 맥락에서 유다의 범죄는 개인을 넘어 필연코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를 상징한다.

실제 예수를 강도 높게 배척한 이들은 예수가 사랑한 이스라엘 민족이었다. 그들 역시 성난 얼굴로 창끝 같은 저주의 말을 뱉으며 예수를 십

자가에 매달라고 요구했다.

십자가 처형을 청원하는, 광기로 붉게 물든 광장을 상상해 보라! 그 광장은 전날 환영의 꽃잎들이 흩날리고 묵직한 나팔 소리가 못별처럼 쏟아져 내린 곳이었다. 그러고도 그들은 죄를 십자가형을 선고한 빌라도에게 돌렸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시오.”

죽은 물고기를 방치한 연못은 썩기 마련이다. 물고기가 죽음에 이르게 된 경위는 다양할지 몰라도, 그 이유를 나 아닌 다른 곳에서 찾는 한 장기적으로는 누구도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 그게 정한 이치다. 유다라는 창을 통해 나를 비취보는 노력의 일단은 당장 불편을 유발할 수 있다. 차라리 거리를 두는 게 여러 모로 나을지 모른다. 그렇다고 우리의 무수한 흔적 속에 유다로 난 창이 지워질까? 배신의 크기가 다르다고 안심할 수 있을까?

기독교 소설이 지닌 인과관계의 평면성을 극복하고, 빼어난 긴장감과 정교한 구성으로 흡인력을 한층 높인 작가 정신에 찬사를 보낸다. 일반 소설 못지않은 문학적 성취로 기독교 소설의 평가 층위를 여러 단계 위로 끌어올린 작가의 노고는 거듭 상찬받아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유다를 새로운 각도에서 바라봄으로써 내재된 단일한 사고를 흔들며 깨우고 평온한 마음에 파문을 일으킨 데서, 「유다: 배신의 입맞춤」은 불편한 자극의 백미를 오늘도 이어간다.

김정원 목사
크리스천북뉴스 편집위원

“예수님을 향해 한 줄로 꿰어져 있는 이야기 성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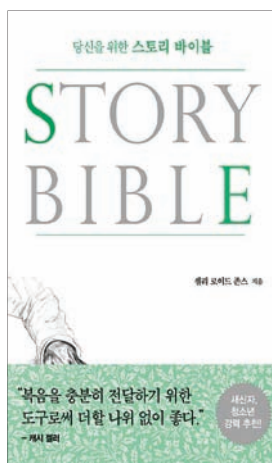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이 책에는 성경의 이야기 줄기를 따라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원 역사가 감동적인 이야기로 잘 나타나 있다.

이 책은 베스트셀러이자 문필상(Moonbeam Children's Book Awards) 금메달 수상작인 《스토리 바이블 : 예수님을 알아가는 기쁨》의 어른용 도서이다. 많은 독자들이 어린이 도서임에도 불구하고 《스토리 바이블》에 열광했고, 새신자나 불신자들에게 전해 주었다. 그 성원에 힘입어 어른용 도서를 출간하게 되었다. 이 책은 재미있는 이야기 성

경이라 성경이 낯설고 어려운 이들이 읽기에 적합하다. 또한 구약 성경의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나 '사자굴 속의 다니엘' 이야기 등 모든 이야기가 예수님을 향해 한 줄로 꿰어져 있기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구원사를 분명히 알 수 있다.

성경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너무나 쉽게 성경의 맥락을 꿰뚫을 수 있다. 성경을 일독해도 전체 내용을 알기 어려웠다면 이 책을 통해 기본 맥락을 파악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사랑하며, 삶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성



스토리 바이블
셀리 로이드 존스
두란노 | 220쪽

장할 수 있다.

지은이 셀리 로이드 존스는 영국인으로 우간다의 수도인 캄팔라(Kampala)에서 태어났고, 동아프리카와 서아프리카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뒤 영국에서 공부했다. 17년 간 어린이 책을 집필했으며 동화작가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저자는 성경의 진리를 재미있는 언어와 표현력으로 전달하여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이 책은 성경이 낯설고 어려운 이들이 구속사적 맥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책에 실린 모든 이야기가 예수님을 향해 한 줄로 꿰어져 있기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구원사를 분명히 알 수 있다.

저서로는 《사랑하는 내 동생》, 《손가방 친구들》 등이 있다.

북한간부의 하나님을 만나기까지와 순교한 스토리
- 우리들의 회개와 동족들의 마음을 언어 통일의 꿈을 줄 두 권의 책 -

- 구입: 미주두란노와 기도운동종교회 (\$20/권당)
- 문의: (425) 775-7477, www.gideonbrothers.org, gbmwsa@gideonbrothers.org (온라인주문가능)
- 주소: GBMW (체코오더명과 우편수취명 동일)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젊게 하는 세계 에미나99 꼭 사용합시다.



우리 가정에서 사용하는 생활세제는 20가지가 넘습니다. 대부분이 화학세제로서 아토피, 알레르기, 피부질환의 원인이 되고, 환경을 오염시킵니다.

이 화학세제 대신 친환경, 무공해, 다용도 “에미나99”세제를 꼭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 효과

- 세탁 시 유연제 필요없고, 정전기 방지되고, 보송보송한 건강에 좋은 세탁물이 됨
- 고무장갑 없이 설거지 하면 피가 더 잘 통하고, 기름이 잘 지워짐
- 청소(화장실 변기, 욕조, 마루, 가구, 가전제품, 식당, 후드, 세차) 시에 화학물질이 없어지고, 이산화탄소를 없애 공기를 정화시킴
- 애완동물 목욕, 여행 수질 유지와 뿌리엔 집안의 모든 냄새를 없앴
- 농작물에 적은량을 뿌려주면 진딧물과 병충해가 없고 수확이 3배 이상이 되며 무공해 농사를 지을 수 있음(꽃에 뿌리면 빨리 시들지 않음)
- 양치질, 활성산소 제거, 정전기 방지, 신선도 유지, 에너지 절감, 해충기피, 습도조절, 결로방지, 곰팡이 제거



항산화 세제 “에미나 99”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

1. 친환경 무공해 세제로 건강을 지킵니다. (아토피, 피부염, 상처, 가려움증)
2. 지구를 정화시킵니다. (이산화 탄소, 다이옥신 제거, 방사선 감마선 20% 감소)
3. 세제 비용을 1/3정도 줄여 경제적입니다. (4인 가정 화학세제 년 약 \$200.00 저축함)
4. 물을 절약합니다. (세탁 시 한번만 행구면 건강에 좋고, 사용한 물은 식물에 거름이 되고, 하수구 정화됨)

자재품: 물돌, 밥돌, 튀김돌, 생생팩, 신비의물돌, 세수비누, 삼푸, 로션, 크림은 모두 항산화 용액을 넣어 만든 제품으로, 산화를 막아주는 세계 유일의 특유한 제품입니다.

Yirrh Healthy Living Co. 이레 건강
833 S. Western Ave. #15, LA, CA 90005 (로레오 갤러리아)

인터넷 “약손 나손” 검색 **Tel:323)316-6815**

Korea Campus Crusade for Christ Changes Its Name to 'SOON Movement'

BY JUNHYEONG KIM

Korea Campus Crusade for Christ (KCCC) officially announced on March 11 that the organization's name will be changed to SOON Movement. For the near future, the organization will be using both names together as leaders predict it will take time to completely transition from the original name the organization had been known as for 45 years.

According to KCCC, Campus Crusade for Christ (also known as Cru) was started by Dr. Bill Bright and his wife at UCLA in 1951, and currently has some 30,000 full-time staff in 193 countries. In 1971, staff of Korea Campus Crusade for Christ -- the South Korea affiliate of Cru -- began evangelizing in college campuses in Los Angeles, which began KCCC's ministry in the U.S. Today, KCCC has about 90 staff in 52 universities in the country's major cities.

KCCC's leaders have pursued changing the ministry's name since four years ago, beginning with Campus Crusade for Christ's decision to change its name to Cru in 2011. The leaders of Campus Crusade for Christ, as it was known as at the time, decided to change the ministry's name after concluding that the term 'Crusade' in the middle of the former name may remind some of the historical Crusades that took place from the 11th to 13th centuries, and may thus have a negative influence on the ministry's evangelical and missional purposes. For the same reason, some 95 percent of Cru's international affiliates had also changed their names.

'Soon' is a Korean term that symbolizes Christ and appears in the Korean translation of Isaiah 53:2, which describes Jesus



Pastors and elders of Dong Shin Presbyterian Church and staff from KCCC were present at the MOU signing on March 11.

as one who "grew up before him like a tender shoot." (The 'shoot' is translated into 'soon' in Korean.) At the same time, 'soon' is also a Korean term that is directly related to one of the most defining aspects of KCCC's ministry: 'soon' small groups. KCCC's small groups are called 'soons,' in which the 'soon wons' (small group members) are disciples by 'soon jangs' (small group leaders). Using the word 'soon,' which is a significant term in KCCC's discipleship training, as part of the ministry's new name also can be interpreted as the ministry's further commitment to discipleship.

The decision made by Cru's leaders to change the ministry's name came from the negative connotations that the term 'Crusade' has, but KCCC has a bit of a variety of reasons in changing its name. First, including 'Korea' in the name may sometimes alienate students who are not Korean, staff said.

"The need to change the 'Korean' portion of our name came to the forefront when we realized that the presidents of the student bodies in our Los Angeles, New

York, and Chicago regions were either White or Chinese, different ethnicities," explained Dong Whan Kim, the national director of KCCC USA.

A similar logic was applied for the term, 'Campus,' in the former name. KCCC's current ministry is not bound only to college campuses, but the organization also engages in local church ministry, worship ministry, and juvenile camp ministry, beyond the lines of the college campus. And for 'Crusade,' the same reasoning applied as that of Cru's.

The last term left is 'Christ.' "Only the name of Jesus Christ must be exalted and shared. For this name to be most effectively shared to people of all backgrounds, anything can be relativized or changed," KCCC staff stated.

To the question, "Is there any evidence that taking out the term 'Christ' in the name would help to share the gospel more effectively?" Kim responded, "We take pride in being a campus ministry that shares the gospel most proactively. In reality, saying up front

'I am Christian' while evangelizing on college campuses creates a barrier as the other person begins to think, 'I'm not a Christian.' It causes the process to begin with a closed heart. But when we introduce ourselves with the term, 'soon,' which symbolizes Christ, it would make it easier for those who are approached to become more interested. We don't want to abandon Christ's name; we want to exalt and testify Christ by using the term, 'soon.'" KCCC explained that 'soon' is "the most Korean term that signifies Christ."

Meanwhile, KCCC also signed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with Dong Shin Presbyterian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on March 11, through which KCCC agreed to help Dong Shin in further developing its college ministry and providing college related ministry training, while Dong Shin agreed to provide support through "praying, giving, and participating in" KCCC's ministry.

KCCC has already moved its main offices from Los Angeles to a portion of Dong Shin's property in Fullerton earlier this year.

Foundation to Provide Scholarships for Korean American Pastors

About 10 to 12 individuals to be selected for scholarships of \$1,000 to \$1,500 each

BY RACHAEL LEE

A foundation sponsored by four local churches will be offering scholarships once again for Korean American pastors and seminarians.

Called the Christian Scholarship Foundation of Greater Washington, the foundation began in 1981 in hopes to invest in Korean American leaders who will carry on a faithful ministry in the midst of "a dark and corrupted world," according to the foundation, and is sponsored by four local churches including Virginia Presbyterian Church, First Virginia Baptist Church, and The Church for All Nations. Since its establishment, over 350 individuals have received scholarships, and scholarships have been given on an annual basis.

"Since 2009, we realized that the reality of the Korean church is that there is a lack of ministers who can speak English fluently, and decided that we should form a scholarship so that we can help invest in the education of our Korean American pastors," the foundation said.

"The history of Korean immigrants in the U.S. is growing longer, yet it is becoming increasingly difficult to find English-speaking ministers who can build up the younger generation in faith," said Incheon Lee, one of the chairmen of the board of directors for the foundation. "We want to focus on Korean American, English-speaking seminary students, and by giving them these scholarships, we hope to give our best in nurturing and building up Korean American leaders."

About 10 to 12 individuals will be selected to receive scholarships of \$1,000 to \$1,500 each. Applicants must be baptized Christians and "living a Christ-like life"; must have completed college and are either enrolled or currently attending a state-approved seminary; must have a purpose to serve second and third generation Korean Americans; and must be a permanent resident or U.S. citizen. Individuals from all over the country are eligible to apply.

Applicants must also submit an application letter, two recommendation letters (one from a senior pastor) which may be written in either English or Korean, and a testimony of faith, along with other documents.

"This scholarship is ... an encouragement to me to study harder, to minister with more care and more love," shared Daniel Bang, a previous scholarship recipient and a student at Biola University's Talbot School of Theology. "I believe you are making an impact on eternity."

Local, State, and Community Leaders Gather to Share Resources on Combating Homelessness

BY RACHAEL LEE

About 20 leaders of the community and homeless ministries gathered in Los Angeles on Tuesday morning to share and discuss what they have been doing thus far in terms of reaching out to the homeless, what resources they need and may be able to receive from the government, and ways they can partner with the government to be more effective in their outreach.

The session, which was hosted by Korean Churches for Community Development (KCCD), was attended by representatives of about a dozen organizations, including Grace Community Services (a ministry part of Grace Ministries International), CCCLA, World Martial Arts Mission, and New World Mission.

Ben Pak from the office of Senator Kevin de Leon, and Ashlee Oh, a consultant for the homeless initiative of Los Angeles County, were also present at the gathering.

Hyepin Im, the CEO and president of KCCD, said that the gathering came about because she noticed that many organizations and ministries have been doing much to reach out to and help the homeless but have not been receiving attention or recognition from the government, potentially causing them to miss out on resources they may be qualified for.

"But even if none of you are able to receive any funding or resources as a result of this meeting, at the very least, my hope is that you would get to know each other and encourage one another," Im said



Leaders from various ministries and organizations were present at KCCD's recent homelessness strategy meeting.

to start the meeting.

Previous to the meeting, KCCD had conducted an informal survey with about 30 churches,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who have been involved with homeless outreach work. Of those who participated in the survey, 29 said they provide food, 28 said they provide clothing, 23 said they provide worship and spiritual support, and 12 said that they provide some sort of housing or connect individuals to housing opportunities.

More than half said they need some type of money, financial support, grant, funding, or donation in response to the question, "What support do you need in working with the homeless?" Several said they need more volunteers, and a few said they would like networking opportunities to learn from other organizations and see how they can work together.

Pak and Oh shared some of the initiatives that the government has recently launched, both on the county and state levels, that may

allow some to receive funding, and also allow these organizations to become a part of the greater process in combating homelessness.

On the state level, Pak explained the 'No Place Like Home' Initiative that was announced in January this year, a multi-billion dollar initiative to prevent and address homelessness that received bipartisan support. The proposal focuses on providing housing, as state lawmakers hope to spend \$2 billion to build permanent supportive housing for homeless individuals, as well as \$200 million to provide supportive short-term housing and rent subsidies.

"This money will be trickling down very soon in a few years," said Pak, "and I hope the community is engaged. Individuals, ministries, or organizations should get ready to be one of the non-profit organizations eligible to receive this funding."

On the county level, Oh elaborated on 47 strategies that were just approved by the Los Angeles

County Board of Supervisors in early February to tackle homelessness. Members of the community are also invited to participate in the implementation process as part of a workgroup and/or by providing feedback to policy drafts, Oh said. Strategies include increasing employment for homeless adults; providing subsidized housing and expanding general relief housing subsidies; enhancing services for transition age youth; and creating homeless prevention programs for families.

One representative from New World Mission who has been doing homeless outreach for some 20 years shared that he personally knows of a few Korean homeless individuals who simply stay at the home of people who are doing homeless outreach-related work, as well as some who consolidate resources to live four to five people to a room. Others also shared of specific people and organizations that have been providing informal housing. Would these people be qualified to receive any funding or resources, or does it have to be a formal shelter or housing building? "Every unit counts," Oh responded, and shared that they may be able to receive funding from the county but would need to meet with them separately to hear about the circumstances.

The two-hour meeting mostly touched upon these funding and resource opportunities, and Im shared a willingness to start a loose network of those who are involved with homeless outreach to continue sharing information and resources.

Local Churches and Ministries

Christianity Daily

A ministry through journalism

For questions about advertising and donations
T.(213)739-0403 F.(213)402-5136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PASTOR JUSTIN KIM

Bethel English Church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2
T. (949) 385-3051 / www.ocbethel.com

Sunday Services: 9:30 AM & 11:30 AM
Sunday School: 11:30 AM
College Group Meetings: Fridays at 6 PM

PASTOR SUNG CHANG

Charis Mission Church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www.charis.church

Sunday Services: 11 AM & 12:30 PM

PASTOR HAROLD KIM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c.com

Clinton and Trump Continue to Take the Lead After Super Tuesday II

The ongoing Democratic and Republican primaries appear to be narrowing down the nominees for 2016 presidential elections, though the battle is not quite over yet.

Former Secretary of State Hillary Clinton registered major victories in Florida, North Carolina, Ohio, and Illinois on Super Tuesday II, but tied with Bernie Sanders in Missouri. Eighteen states have already been won by Clinton and nine by Bernie Sanders.

Clinton hopes to win the nominations by maintaining a delegate lead of roughly 300 towards the end.

"We are moving closer to securing the Democratic Party nomination and winning this election in November. And our supporters across the country, our campaign has won more votes than any other candidate, Democrat or Republican," she told cheering supporters.

Clinton also complimented Sanders for being a tough contender in the primaries. "I want to congratulate Senator Sanders for the vigorous campaign he's waging," she said.

On the Republican side, Trump is maintaining a steady lead ahead of the other party hopefuls for the nomination, having won in 19 states. His closest

competitor Senator Ted Cruz led in only 7 of the caucuses, Marco Rubio in three states, and John Kasich in one - Ohio, where he is the sitting governor.

Rubio announced that he would be dropping out of the presidential race after he lost to Donald Trump in his home state of Florida.

"After tonight it is clear that while we are on the right side, we will not be on the winning side," Rubio told his supporters in Miami after ending his campaign. "I ask the American people -- do not give into the fear, do not give into the frustration. The politics of resentment against other people will not just leave us a fractured party -- they're going to leave us a fractured nation," he said.

Trump has acquired 621 delegates so far, followed by Cruz who has 395 delegates. Rubio and Kasich have less than 200 as yet. On the Democratic arena, Clinton has already rallied support of 1,094 delegates, while Sanders is backed by 774 delegates.

In case Trump fails to win a majority of delegates over to his side, he will have to face a brokered or an open convention, where delegates are free to choose any one of the participating primary candidates, or even a lawmaker

who was originally not in the race.

The last time delegates resorted to an open convention was in 1984 to resolve skewed Democratic primaries for Vice President Walter Mondale. However, Republicans took this recourse last only in 1976 for President Gerald Ford.

Speaking about Trump at her victory speech after Super Tuesday II, Clinton said, "Our commander in chief has to be able to defend our country, not embarrass it, engage our allies, not alienate them, defeat our adversaries not embolden them... We should be breaking down barriers, not building walls. We're not going to succeed by dividing this country between us and them."

"You know, to be great, we can't be small. We can't lose what made America great in the first place," Clinton added.

Cruz also stands in opposition to Trump, saying that only his campaign can beat him.

"After tonight, we have seen that our campaign is the only campaign that has beaten, that can beat, and that will beat Donald Trump," he said. "Fifteen states have now voted. Every one of those states so far has been won by either Donald Trump or myself."



(Photo: Foreign and Commonwealth Office/Wikimedia/CC) Syrian refugee children at the Zaatari refugee camp in Jordan.

Christians in America Pray for Syrian Refugees on 5th Anniversary of Civil War

American Christians are coming together to pray for Syrian refugees who are fleeing conflict in their country which began about five years ago in early spring of 2011.

Christians from different denominations are uniting under a prayer campaign #prayforrefugees to pray that they receive the love of God and are protected on their journey. Prayers will also be offered for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who are caring for refugee communities, so that they could help them better and ease the pain of suffering refugees.

The campaign is pioneered by the Ethics & Religious Liberty Commission (ERLC) of the Southern Baptist Convention.

Other major organizations working with ERLC to support the refugee crisis are Baptist Global Response, Global Hunger Relief, Justice Conference, Lutheran World Relief, Catholic Relief Services, Adventist Development and Relief Agency, and PrayerMate, among many others.

A Christian relief charity, World Vision International, based in Washington, has also participated in the campaign that aims to reach Christians across America.

"American Christians are a diverse community. We don't agree about everything. And the Syrian crisis involves complicated and controversial issues. But as Christians, we can all affirm the beliefs that each human being is created and loved by God; that we are commanded to serve the suffering, and in fact, we are to find Christ himself in those who are hurting the most," said Rich Stearns, president of World Vision.

Similar views were echoed by Stephan Bauman, President of World Relief, which is the humanitarian arm of the National Association of Evangelicals, working towards relief and development of the poorest communities around the world.

Bauman said that though Americans may not agree with the best political and logistical solution, "any Christian

can pray for peace in Syria; for protection and relief for those who are innocently caught in the crossfire; and for those serving the hurting."

The campaign started on February 10, Ash Wednesday, and will continue until March 27, Easter Sunday. However, special prayer events have been held across America to mark the fifth anniversary of the conflict on March 15.

The ERLC website notes that the Syrian refugee crisis is the worst since World War II, with more than 13.5 million people affected.

Over four million have migrated to other countries as refugees, where they live in dingy and unhygienic living conditions.

Millions of children have left their education, which makes them vulnerable to early marriage and child labor, and might have long-time repercussions on their lives as well.

Social media updates on the campaign can be found on #prayforrefugees at Twitter and Facebook, with picture uploads on Instagram.

Summit to Pray for Persecuted Christians World Wide to Take Place in Moscow

The Billy Graham Evangelistic Association is hosting an international summit on religious persecution in Moscow in collaboration with the Russian Orthodox Church. The summit, called 'The World Summit in Defense of Persecuted Christians,' will be taking place from October 28-30, 2016.

Franklin Graham announced on his Facebook page last week that 'The World Summit in Defense of Persecuted Christians' is called in view of rapidly increasing persecution of Christians around the world in recent years, as also documented by last year's study on persecution by Open Doors, which found that 2015 was the worst year of Christian persecution.

Graham met the head of the Russian Orthodox Church, Patriarch Kirill, in Moscow last October, and explained why Russia was chosen as a host for the summit.

"No church in modern history has

suffered more than the church in Russia," Graham explained.

"In the years under Communist rule, virtually all of the priests, pastors, and church leaders in Russia were imprisoned or executed by the Communists, and their graves are on the outskirts of Moscow and throughout the country serving as a reminder. So Moscow will be a fitting and meaningful location for this much-needed summit," he continued.

The summit is expected to be held towards the end of this year, when delegates from around the world from different denominations will come together to pray for persecuted Christians.

Patriarch Kirill said in an interview to RT, "I strongly believe that we should work together in order to save our society from de-Christianization-because, facing increasing atheistic pressure, which has become quite aggressive in

some countries, Christians are being squeezed out of public life."

"Christians are under pressure. Specifically, attempts are made to limit religious manifestations in public space. All this indicates that we are dealing with a dangerous, critical situation here, as regards Christian reality, Christian presence," he continued.

Most of the recent persecution was driven by Islamic extremism and authoritarianism in Middle Eastern and African countries, which perpetrated imprisonments, beheadings, and forced evacuations.

A report by Open Doors said that an estimated 7,000 Christians died for their faith in 2015, which is double the number of killings and executions from the year before.

According to the report, the countries which registered the sharpest surge in persecution were Eritrea, Pakistan, and Nigeria.

Sunday Services: 9 AM & 11:15 AM
Children's Ministry: 9 AM & 11:15 AM
Youth Group Service: Sundays at 11:15 AM

PASTOR KEITH PARK

Church of Southland

1380 S. Sanderson Ave, Anaheim, CA 92806
T. (714) 209-7349 / churchofsouthland.com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www.cornerstonetv.com



Brea Campus Service Times: 9:30 AM, 11:30 AM
Irvine Campus Service Time: 10:30 AM

PASTOR STEVE CHOI

Crossway Community Church

Brea: 695 Madison Way, Brea, CA 92821
Irvine: 100 Honors, Irvine, CA 92620
T. (714) 529-5551 / crossway-church.com



Sunday Services: 9 AM & 10:45 AM
Children's Ministry Services: 9 AM & 10:45 AM
Youth Services: Sundays at 9 AM, Wednesdays at 6:30 PM
College Services: Sundays at 10:45 AM

PASTOR TIM PARK

Evangelical Free Church Diamond Bar

3255 S. Diamond Bar Blvd, Diamond Bar, CA 91765
T. (909) 594-7604 / www.efreedb.org




EM Sunday Service: 12:00 PM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to Young Adults): 7:30 PM

PASTOR JAMES KWAK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Sunday Service: 9: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PASTOR RONNIE PARK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gschurch.org



Sunday Services: 9 AM & 11 AM
Bible Studies: Wednesdays at 7 PM
Prayer Meetings: Tuesdays at 11 AM, Saturdays at 9 AM

PASTOR SAM KOH

Hillside Church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909-9062 / www.hillside.org



Sunday Services: 9:45 AM

PASTOR PHIL KIM

The Home Church

19271 Collina Rd, Suite A/B,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384-1393 / thehomechurchrowland.com




Sunday Services: 11:30 AM

PASTOR HENRY LEE

Crossroads Church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www.crclafgc.com



Sunday Services: 9 AM & 11 AM
College Group Meetings: Sundays at 12:30 PM, Fridays at 8 PM

PASTOR STEVE CHANG

Living Hope Community Church

1215 W. Lambert Road, Brea, CA 92821
T. (562) 694-2100 / www.livinghopecc.org



Sunday Services: 10: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0:30 AM, 12:15 PM
College Services: Sundays at 12:15 PM

PASTOR KIWON SUH

New Life Vision Church

4077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323) 373-0110 / www.nlv.org




Sunday Services: 8:30 AM, 9:45 AM & 11:15 AM

PASTOR PAUL KIM

Redeemer Presbyterian Church

1831 South El Camino Real Encinitas, CA 92024
T. (760) 753-2535 / www.redeemersd.org




Sunday Services: 1 PM
Youth Group Services: Sundays at 11 PM, Thursdays at 7 PM

PASTOR DANIEL HAN

Restore Fellowship

2525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487-3920 / www.ladongsan.com




Broadway Campus Sunday Services: 9:45 AM, 11:15 AM, 12:45 PM
Jefferson Campus Sunday Services: 9:30 AM, 11:30 AM

PASTOR MICHAEL LEE

Young Nak Celebration Church

Broadway: 1721 North Broadway, LA, CA 90031
Jefferson: 150 W. Jefferson Blvd., LA, CA 90007
T. (323) 227-1414 / www.ynccla.org



PH
PuenteHillsHyundai
SUPER STORE

72개월까지
0%이자가능

소비자 만족도 서부지역 1위! • 미국에서 가장 큰 단일 현대 딜러! • 미국에서 에쿠스를 가장 많이 파는 딜러!

새 봄 맞이 SALE

HYUNDAI
SEIZE THE MOMENT
 SALES EVENT

NEW
2016 HYUNDAI
ELANTRA SE

Lease It For **\$58** +Tax

All In Stock With
MSRP \$19,375

36 Months Closed End Lease, \$3,999 Due At Signing, \$2,000 Lease Cash, \$500 Competitive Owner Coupon, \$500 Military Rebate, \$400 College Grad Rebate, On Approved Credit, 12,000mile/year



"THE EXCITING APPEAL OF ELANTRA SPORT"

NEW
2015 HYUNDAI
SONATA LIMITED
 With Ultimate
 Technology Pkg

Lease It For **\$88** +Tax

All In Stock With
MSRP \$32,730



"DESIGN RENEWED BY INNOVATION"
 Panoramic Sunroof, Navigation System W. 8" Touch Screen
 Integrated Memory System For Driver Seat & Side Mirror & More!!

36 Months Closed End Lease, \$5,999 Due At Signing, \$4,000 Lease Cash, \$500 Lease Loyalty Cash, \$500 Military Rebate, \$400 College Grad Rebate, On Approved Credit, 12,000mile/year

NEW (Demo)
2016 HYUNDAI
EQUUS SIGNATURE

Lease It For **\$399** +Tax

3 In Stock With
MSRP \$62,450

Stock # Gu106201 / Gu104147 / Gu101688
 36 Months Closed End Lease, \$3,999 Due At Lease Signing, Lease Cash \$8,500, Competitive Owner Coupon \$1,500, Military Rebate \$500, College Grad Rebate \$400, On Approved Credit, 12,000mile/year



"A PERFORMANCE VEHICLE WRAPPED IN LUXURY"

NEW
2015 HYUNDAI
GENESIS SEDAN 5.0L V8 Engine

Lease It For **\$299** +Tax

All In Stock With
MSRP \$52,705

36 Months Closed End Lease, \$3,999 Due At Lease Signing, Lease Cash \$4,250, Competitive Owner Coupon \$1,500, Military Rebate \$500, College Grad Rebate \$400, On Approved Credit, 12,000mile/year



"It's an honor to be nominated 2015 North American Car Of The Year Finalist"



찰리 정
 626.513.4981



스티브 장
 626.723.3336



저스틴 길
 626.723.3584



1-888-644-7114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Terms and conditions available

HYUNDAI
Assurance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www.phhyundai.com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 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